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샤일로 시즌

Shiloh Season

필리스 레이놀즈 네일러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김 지 은

2013년

샤일로 시즌

Shiloh Season

지도교수 박 경 란

김 지 은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7월

김지은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3년 7월

Shiloh Season

Ji-eu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3. 0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뉴베리 수상작 **샤일로**의 저자

필리스 레이놀즈 네일러 지음

샤일로

시즌

샤일로 3부작 중 제2권

목 차

제 1 장	1
제 2 장	8
제 3 장	13
제 4 장	18
제 5 장	26
제 6 장	33
제 7 장	41
제 8 장	48
제 9 장	52
제 10 장	57
제 11 장	62
제 12 장	68
제 13 장	76
제 14 장	83
제 15 장	88
제 16 장	96
작가소개	105
커버스토리	106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신 메릴랜드 주 포토맥에 있는 세븐
락스 동물병원의 전 직원과 진짜 샬로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프랭크 매든과 트루디 매든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손녀

소피아 네일러와 트레사 네일러에게

하 나

샤일로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된 이후,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하나는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좋게 끝났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처음엔 좋았지만... 자, 어떻게 되었던 일인지 지금부터 말을 하겠다.

웨스트버지니아의 프랜들리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가 자기 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해서 이 몸집이 작은 비글을 사냥용 개로 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비글이 저드 아저씨의 밭길질과 욕설을 피해 내게로 도망쳐왔는지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우리 숲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그 개를 숨긴 다음 샤일로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에 대해 안다. 저드 아저씨는 자신의 개들을 이름 대신 욕지거리 말로 부른다. 그리고 타일러 카운티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셰퍼드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샤일로를 끄찍하게 물어뜯었는지에 대해 들었고, 샤일로에 대한 비밀도 드러나게 되었다. 아빠가 샤일로를 차에 태워 머피 선생님에게 데리고 갔고, 선생님이 샤일로의 상처를 꿰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과 시스터스빌에서 가장 입이 썩 내 친구 데이비드 하워드 덕분에 내가 그 개를 얻으려고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를 위해 2주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샤일로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고, 엄마와 아빠의 것이고, 다라 린과 베키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샤일로를 끄찍이 아껴 주었고, 때론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꼈는데 그럴 때면 샤일로는 꼬리를 너무 흔들어서 그 꼬리만 떨어져 날아갈 지경이었다.

아무튼, 처음엔 나빴지만 마지막에는 좋았다고 한 일은 내가 머피 선생님에게 샤일로를 치료 해주느라 빚진 돈을 모두 갚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남은 여름 내

내 병과 알루미늄캔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2달러 10센트밖에 모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돈이라도 먼저 머피 선생님에게 가져갔을 때, 머피 선생님은 치료비에서 그 금액을 제하면서 나머지 돈은 내가 저드 아저씨 밑에서 일했던 것처럼 자기 밑에서 일하는 것으로 갚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저드 아저씨가 이제 샤일로로는 내 것이라고 말한 이후로 실로 오랜만에 들었던 최고의 뉴스였다.

그리고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더 나빠지게 된 일은, 저드 아저씨와 나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모두 해결된 이후 저드 아저씨가 나에게 샤일로를 위한 목걸이도 주었지만 아저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드 아저씨가 예전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벨트 버클 위로 수박이 튀어나온 것처럼 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폭음 수준이다.

내가 처음으로 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머피 선생님의 집에서부터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고, 샤일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빠르게 걷고 있었다. 샤일로는 항상 전에 알고 있던 것도 두 번 정도 냄새를 맡고서야 찾아내지만, 그곳으로 갈 때는 느릿느릿 다가간다. 그리고 내가 머피 선생님 댁에서 일하고 있을 때면 샤일로는 강가에 내려가 있지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배가 부르고 물기에 젖어 있는 개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서 샤일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트럭이 길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만 듣고도 트럭이 과속으로 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돌렸을 때 만약 트럭이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커브를 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고,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의 픽업트럭임을 알았다.

나는 마치 미들 아일랜드 개울로 배치기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풀밭으로 몸을 날렸고, 트럭이 바로 내 옆의 공기를 세차게 치고 지나간 후 나는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트럭은 몇 피트 올라가더니 다시 뒤로 빠져나와 다른 쪽으로 들어선 다음, 다리 쪽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 보인다.

샤일로가 달려와 내가 괜찮은지 살펴보려는 듯 내 얼굴을 훑는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은 왜 저드 아저씨가 나를 치려고 했던 것인가이다. 아니면 나를 보지 못한 것일까? 그 정도로 취한 것일까? 만약 샤일로가 내 앞이 아니라 뒤에

있었다면 지금쯤 나는 죽은 개를 보지 않았을까?

“저드 아저씨가 나를 거의 칠 뻔했어요!” 그날 밤 저녁식사를 하며 내가 말했다.

“저드 아저씨가 ‘뭘’라고?” 엄마가 묻는다.

나는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식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저드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거야?” 다라 린이 물었다. 엄마는 하얀 콩과 옥수수 빵, 그리고 콩 사이에 빨간 햄 조각을 조금 넣어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다라 린은 자신의 접시에 있는 햄 조각 개수를 세고 있다. 엄마가 나보다 자기에게 더 많이 주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나도 몰라.” 내가 다라 린에게 말한다.

엄마가 아빠를 쳐다본다. “문제가 심각해요, 레이.”

아빠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내가 들은 것이 맞는 것 같군. 사람들 말하는 저드가 벤스 런 근처 술집에 자주 들르는 것을 봤다는군.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에도 술을 마시는 모양이야.”

엄마는 걱정스럽게 말한다. “차도로 다니지 말거라, 마티. 다라 린, 너도 마찬가지야. 트럭 오는 소리가 들리면 충분히 지나가도록 비켜서야 해.”

“저드 아저씨는 잡혀가려고 작정을 한 거야.” 내가 말했다. “왜 갑자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나는 사람이 갑자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분명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목이 마른가봐!” 베키가 말하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트린다. 베키는 세 살이다. 다라 린은 자신도 그렇게 말했을 테지만 그저 함께 따라 웃는다. 다라 린은 일곱 살이고 나는 그보다 네 살이 더 많다. 그래서 엄마는 늘 내게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저드 아저씨의 개를 우리 숲에 숨겼던 일은 우리 가족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엄마는 저드 아저씨가 행복하지 않아서 술을 마시는 것 같구나.” 엄마가 말한다. 엄마는 옥수수 빵 조각에 마가린을 펴 바르고, 아주 천천히 베어 먹는다.

“아마 샤일로를 보고 싶어 하는 걸 거야.” 베키가 그렇게 말하고 되풀이하려고 한다. 나는 베키가 그 말만은 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쩌서?” 다라 린이 묻는다. “저드 아저씨는 다른 강아지들도 많잖아.”

엄마는 생각에 잠긴 채 밥을 먹는다. “저드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에 비친 것을 싫어하는 거 같아.” 엄마가 말한다. “저드의 개가 계속 도망쳐 마티 너에게 오고, 또 멍청이라고 말해도 네가 한동안 그의 집에서 일했던 것으로 인해 저드는 자신의 못생긴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 같구나.”

베키가 고개를 위 아래로 끄덕인다. “저드 아저씨는 못생겼어.” 베키가 말한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우리는 베키의 말에 다시 한번 웃는다.

아빠는 그동안 내내 옥수수 빵을 쪼개서 접시 위의 콩과 함께 섞어 먹고 있었는데, 나는 그제야 아빠가 유일하게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내 생각엔 저드가 우리 숲에서 계속해서 사냥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구나. 그게 토끼이길 바라지만. 숲에서 맥주 캔 하나를 찾았는데, 저드가 마시는 맥주더라고. 그리고 어제는 지난 주말과 똑같은 총성을 두어 번 들었어.”

“거긴 우리 숲이라고 ‘표지판’을 해 놔잖아요!” 엄마 말은 숲을 둘러싸고 사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세워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 사냥꾼들이 몰래 들어오기도 한다. 우리 숲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언덕 저편의 목초지에도 들어온다.

엄마의 회색 눈동자가 이제 아빠를 향한다. “레이, 저드에게 말해야 해요! 나는 그가 숲에서 술 마시고 사방으로 총을 쏘대는 건 싫어요. 그 총알 중 하나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저드에게 말해볼게.” 아빠가 말한다.

그때 난 정말로 조용히 있었다. 사실, 난 내 접시에 있는 콩을 다 먹었다. 한 접시 더 먹을까 하다가 갑자기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 계단 위에 앉았다. 9월이라 하기엔 아주 따뜻하고 건조해서 바람 쐬기에 좋다.

샤일로가 옆으로 다가와 머리를 내 다리에 얹고 눕는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하품을 크게 하고 눈을 감는다.

이것은 나와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심지어 우리 가족도 모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저드 아저씨의 개를 데리고 있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사냥철이 아닌데도 아저씨가 사슴을 쏘 죽이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는 것이다. 물론 암컷이었다.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아니 물론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내가

수렵 감시인에게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저씨가 알았을 때, 아저씨는 내가 암사슴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를 위해 꼬박 2주간 일을 하면 샤일로를 데려가도 된다고 말했다. 저드 아저씨는 내게 어떤 일을 시키면 가장 힘들고 혹독할지 생각하느라 밤새 잠도 못 잤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지만, 난 그 일들을 모두 해냈다.

애초부터 그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었다. 이제는 그 비밀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암사슴과 사냥의 모든 흔적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나는 현관 기둥에 기대어 샤일로의 머리를 옥수수수염처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나는 저드 아저씨와 내가 완전한 친구는 아니지만, 거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사실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 같은 사람하고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다—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엄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절대 하지 않을 법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고, 저드 아저씨에게 술을 주는 것은 곧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폭탄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저드 아저씨가 악의로 샤일로를 트럭으로 치거나 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저씨가 우리 숲에 들어와 사냥을 할 때 샤일로가 뛰어 다니면 어떻게? 저드 아저씨가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것을 쏘면 어찌지?

저녁 식사 후에 아빠가 우리 숲에서 발견한 맥주 캔을 들고 나온다. 지프차 앞좌석에 캔을 놓고, 차에 타고는 진입로를 향해 내려간다.

나는 지프가 길가의 진입로에 잠시 멈추었다가 우회전을 하고, 방앗간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다. 차는 오래된 다리를 건너 내 기억으로는 문을 닫은 샤일로 학교 옛 건물 쪽으로 간다. 그 후 차는 내 눈에서 사라졌지만, 나는 아빠가 이 삼분 후에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가 사는 트레일러(이동식주택) 앞에 차를 댈 거라는 것을 알고있다.

나는 듣는다. 그래. 약 이분 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드 아저씨네 개들이 지프 소리를 듣고 한꺼번에 짖는 소리가 들린다. 저드 아저씨네 개들은 사냥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쇠사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못처럼 날카롭다.

나는 이때쯤이면 저드 아저씨가 일요일 밤 7시에 누가 자신을 찾아 왔는지 궁금해 하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아저씨는 일어나 내의차림으

로 문 밖으로 나올 것이다.

아빠는 인도 역할을 하는 환자 위를 걸어갈 것이고, 아빠와 아저씨는 요즘 날씨가 어떤지, 올 가을 사과 수확은 얼마나 잘 될지, 그리고 군청에서는 언제쯤 다리 이쪽에 크게 패인 포트홀을 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계단에 서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나서 마침내 아빠는 저드 아저씨에게 맥주 캔을 보여주며 아저씨가 사냥을 할 때 일부러 우리 숲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아빠는 맥주 캔이 아저씨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총소리를 들었다. 아빠는 저드 아저씨에게 앞으로 우리 숲에서 사냥을 하지 않으면 고맙겠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아빠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드 아저씨가 반박할 만한 말을 나는 십여 개는 생각해 낼 수 있는데, 어느 것도 정중하지 않겠지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샤일로의 머리를 아주 천천히 쓰다듬어주고 있고, 샤일로가 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샤일로가 고양이였다면 가르랑거렸을 것이다.

베키가 밖으로 나와 내 옆에 앉아 시원한 공기가 배를 식힐 수 있게끔 옷을 끌어 올린다.

“그렇게 하지마, 베키.” 나는 베키를 타이른다.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습관적으로 시스터스빌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왜?” 베키가 영리한 아이처럼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 들이댄다.

“그렇게 속옷을 보여주는 것은 숙녀다운 행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베키에게 말한다. 나는 엄마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라 린도 현관으로 나와 아직도 옥수수빵 부스러기를 한 움큼 먹으며 내가 베키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다라 린의 눈을 보니 이제 장난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다라 린은 반바지에 손을 댄고는 고무줄 안으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최대한 세계 ‘탁, 탁, 탁’ 튕겨낸다. 다라 린의 반바지와 팬티의 고무줄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

베키도 웃으면서 따라한다. 둘이 킬킬대면서 팬티 고무줄을 튕기고 있다. 여자

아이들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때 지프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다라 린도 그 소리를 듣고는 이상한 짓을 멈춘다. 마침내 베키도 하던 짓을 그만 두고 아빠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 사용하는 지프가 낡은 다리를 다시 건너 길을 올라와 우리 진입로로 들어서는 것을 쳐다본다.

엄마가 허리에 손을 얹고 현관으로 나온다.

아빠가 차에서 내릴 때 엄마가 말한다. “저, 저드가 뭐라고 해요?”

잠시 동안 아빠의 대답이 없다. 아빠가 그냥 집 쪽으로 걸어와 맥주 캔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당분간은 아이들이 숲에서 놀지 않게 하는 게 좋겠어.” 아빠가 말한다.

엄마는 안으로 들어가는 아빠를 쳐다본다.

둘

텔벗 선생님은 올해 우리학교에 처음 온 신입선생님인데, 우리 6학년을 맡았다. 텔벗 선생님은 젊다. 엄마보다 젊지만, 얼굴에는 엄마와 똑같은 종류의 광대뼈가 높이 솟아있다. 머리 모양도 같은데, 머리카락을 뒤로 높이 묶고 머리핀으로 고정시킨 다음 어깨 근처에서 늘어뜨렸다.

데이비드 하워드와 나는 서로 옆에 앉았다. 텔벗 선생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앉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거기 앉도록 선생님의 허락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 좋은 말로 하면 만약 우리가 말썹을 피우면 선생님은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자리를 바꿀 거라고 말했다.

첫 날이라 선생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아이들이 말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사라 피터스는 작년에 그네에서 떨어져 이가 부러진 이야기를 했다. 이제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이미 ‘치료’가 끝났다. 이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프레드 닐스는 여동생이 태어났다는 말을 했는데, 프레드는 이미 여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은 아니었다.

그리고 데이비드 하워드는 8월 마지막 주에 가족과 함께 덴버에 갔던 이야기를 했다. 덴버는 마일 하이 씨티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주 의사당이 공중 1마일 높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텔벗 선생님은 백과사전을 꺼내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생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웨스트버지니아에도 덴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개’의 덴버가 있는데, 하나는 프레스턴 카운티에 있고 다른 하나는 마샬에 있

다. 텔벗 선생님의 여동생이 그 중 하나에 산다고 말했다.

그 날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샤일로와 샤일로를 데려오기 위해 2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이클 솔트는 이 술 취한 아저씨가 가끔 자기네 집 앞을 운전해 지나갔는데 한번은 우편함을 박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모두들 속삭이기 시작했고 곧 속삭임이 반 전체로 퍼져나갔다. “...저드 아저씨야...저드 아저씨...저드 아저씨...”그 말이 옆 사람으로, 또 옆 사람으로 퍼져나갔다.

텔벗 선생님은 저드 아저씨가 누구인지 몰랐다. 아마 누군가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어린 아이나 작은 개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개에 대해서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나는 샤일로를 하루 종일 혼자 두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몇 번인가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샤일로를 집 안에 가두어 두기를 바란다적이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샤일로처럼 달리기를 좋아하는 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사랑한다면 내키지 않는 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버스가 오하이오 강을 따라 시스터스빌에서 프랜들리까지 가다가 방향을 돌려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개를 발견한 작은 동네인 샤일로를 향해 간다. 그것이 내가 개의 이름을 샤일로라고 지은 이유이다. 한 명씩, 가끔은 한 번에 두 명이나 세 명이 버스에서 내린다. 데이비드는 프랜들리에서 내린다. 다음엔 사라와 몇 명의 아이들이 내리고, 그 다음엔 마이클, 그리고 프레드, 마지막엔 다라 린과 나만 남는다. 버스는 오래된 방앗간까지 간 다음 돌아간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샤일로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달려 내려온다. 이따금씩 미끄러지기도 하고, 몸 전체가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며 자갈들이 발아래에서 튀어 오르지만, 샤일로는 다라 린과 내가 버스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 혀를 빼고 우리 얼굴을 핥을 준비를 한 채로 그곳에 서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그 무엇보다도 나는 샤일로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엄마, 아빠는 빼고. 그리고 베키도. 그리고 아마... 다라 린도. 어느 날

밤, 나는 저드 트레이버스 아저씨가 엽총을 들고 와서 샤일로나 다라 린을 쏘려고 하는데 누구를 쏘지 내 의견을 물어보는 꿈을 꿨다. 그리고 나는 그게 누구일지 정하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만약에 그런 일이 내게 실제로 닥친다면 다라 린을 구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라 린은 나에게 평생 동안 보상해야 할 것이다.

나는 매일 도시락 통에 남겨둔 샌드위치 조각을 꺼내어 그것으로 샤일로와 게임을 한다. 샌드위치 조각을 손바닥으로 동그랗게 쥐고 손을 가슴 아래에 두고 풀밭에 놓는다. 그러면 샤일로는 내가 돌아눕도록 갖은 수를 써서 작은 햄 조각이 붙어있는 빵 조각을 얻어 낸다.

샤일로는 빵 조각을 얻어먹은 후에 다라 린은 언제나처럼 샤일로를 안아 주고, 샤일로 역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우리 작은 샤일로-마일로-와일로 잘 있었니?” 하고 다라 린이 노래를 부르며 샤일로를 아기처럼 안아 올린다. 그러면 샤일로는 다라 린의 얼굴, 특히 아직 짐 먹은 냄새가 남아있는 입 주위를 혀로 깨끗이 핥아 닦아낸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역겨워서 나는 곧장 집을 향해 올라가고 다라 린이 뒤따라 들어온다.

이 날 베키는 현관에 있는 그네에 앉아 비행기나 뱃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다. 한쪽으로 늘어뜨려진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낚시를 하는 것처럼 뱃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엄마는 클라크스버그에 있는 고모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게 된 지 3년 만에 처음이다. 할머니가 헤티 고모네 집으로 가기로 하고나서 고모는 일을 하는 동안 할머니를 하루 종일 돌봐 줄 간호사를 집으로 불러야 했다. 간호사 비용은 우리가 가진 남은 돈으로 아빠가 지불했다.

그러나 지난 달,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려 거의 모든 감각을 잃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신장 기능도 나빠졌다. 허리도 좋지 않아서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일어서거나 앉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헤티 고모는 낮에는 여전히 일을 하면서도 할머니를 돌보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헤티 고모에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

다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고, 아빠가 운전해 내려가, 아빠와 헤티 고모는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헤티 고모가 일을 하고, 또 아빠가 돈을 보내주는 등 우리의 힘으로 할머니를 돌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비용을 대주기 때문에 할머니는 돈 한 푼 없이도 요양원에서 생활한다. 아빠는 이제 우리도 다시 전화를 쓸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라 린과 나는 식탁에 앉아 통밀 크래커 박스에 번갈아 손을 집어넣으며 엄마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헤티 고모? 오 세상에, 그 다음에는요?” 엄마가 말한다.

베키가 들어와서 우리는 베키에게 크래커를 준다.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묻는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젓는다. “나는 너희 셋이 설사 내가 미치광이 짓을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으로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주면 좋겠구나.”

“나’는 엄마가 미치광이 짓을 하는 걸 기억할 거예요!” 다라 린이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묻는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무슨 사고를 치시겠어요?”

엄마가 한숨을 내쉬다. “할머니께서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들의 방에 가셨다는구나. 남자 방에 말이야.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고 그들이 어딘가에 할아버지를 감춰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야.”

베키는 엄마를 빤히 쳐다보지만 다라 린은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웃음을 참는 것뿐이다.

“헤티 고모는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가 요양원에서 쫓겨날까봐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간호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 그들은 이해해줘.”

전화기가 좋은 점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전에는 내가 데이비드 하워드에게 할 말이 있으면 아빠에게 쪽지를 주고, 아빠가 데이비드네 집에 우편물을 배달할 때 데이비드에게 전해주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데이비드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아빠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기

다려야 했다.

이제 전화가 울리면 모두들 전화를 받고 싶어 한다.

베키가 먼저 전화를 받으면 전화기를 입에 대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여보세요. 내 이름 베키고, 세 살이고, 그리고… 그리고 나는 강아지가 있어요.” 대충 그런 식이다. 베키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면 거의 베키 몸 위에 걸터앉아 몸싸움을 해야 한다.

전화가 다시 울리고 내가 받는다. 데이비드다.

“금요일 밤에는 우리 집에서 놀고, 토요일에는 너희 집에서 노는 거 어때?” 그가 묻는다.

나는 엄마에게 허락을 구한다. 엄마는 내가 양말과 속옷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면 그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주 금요일에 나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필통 안에 칫솔을 챙겨 넣고, 샤일로가 도로 끝까지 다라 린과 나를 따라올 때, 오후에 내가 타고 있지 않은 버스가 도착할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는 샤일로 옆 풀밭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샤일로, 잘 들어.” 내가 말한다. “오늘 밤 나는 오지 않을 거야. 데이비드 하워드네 집에 가는데, 내일이면 집에 올 거야, 알겠지?” 마치 샤일로가 말을 알아듣기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샤일로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언가가 달라질 거라고 이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버스가 커브길 쪽으로 다가오고, 샤일로는 짓으면서 뒷 걸음질 친다. 샤일로는 평일 아침마다 우리를 삼키고, 매일 오후에는 다시 뱉어내는 큰 노란색 괴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버스에 올라타고 버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나는 항상 뒤쪽 유리창에 달라붙어 밖을 내다본다. 샤일로가 꼬리를 다리 사이로 내리고 서둘러 도로를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샤일로는 몇 번이고 멈춰 서서 뒤돌아보고는 다시 몇 걸음 더 간다.

나는 내가 데이비드 하워드를 좋아하는 만큼 그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가 없는 집에 샤일로를 밤새 혼자 두고, 또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가 어둠 속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다.

셋

금요일마다 아이들은 몹시 흥분해 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들떠있다. 미들 아일랜드 개울의 독길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물이 충분히 깊다면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 섬으로 노를 저어갈 수도 있다. 만약 깊지 않다면 걸어서 건널 수도 있다.

재미있게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엄마는 그곳을 ‘강’이라고 불렀다. 아빠 말로는, 아빠가 엄마와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 엄마는 개울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여긴 개울이 아니에요. 여긴 강처럼 폭이 넓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잊어버리고 그곳을 ‘강’이라고 부른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마이클 솔트는 며칠 전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가 벤스 런에서 싸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다라 린을 남겨두고 데이비드 하워드와 함께 내려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듣지 못했다.

나는 항상 데이비드 하워드네 집에서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데이비드네 집은 규모가 크고 온갖 종류의 방이 있다. 방 하나 전체가 데이비드의 방이다. 다른 방에는 데이비드네 아버지의 책과 컴퓨터가 있다. 화초만 있는 방도 있다! 한번은 엄마에게 그 방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만약 그 집이 우리 집이라면 그 식물들은 제 자리인 밖에 두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만들 거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하워드의 집에서는 음식도 더 화려하다. 음식 맛이 우리 집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지만, 데이비드네 엄마는 모든 접시 밑에 접시받침을 깔고 천으로 된 냅킨을 플라스틱 고리에 말아 놓는다. 데이비드 하워드네 집에서 내가 밥을 먹는 방법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살펴보는 것이

다.

하지만 데이비드네 식구들은 멋지다. 데이비드의 아빠는 ‘타일러 스타 뉴스’ 신문사에서 일 하는데, 나에게 농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 나는 야구를 더 좋아하는데도 말이다. 아저씨는 항상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화이트 삭스(야구팀)를 보고 있을 때 뉴욕 닉스(농구팀)에 대해서 묻는다.

하워드 아줌마는 선생님인데 무엇이든 잘못된 것을 보면 꼭 고치고야 만다.

“샤일로네 제가 매일 아침 버스 타는 것을 안좋아해요.” 저녁식사 후 하워드 아줌마가 후식을 건네줄 때 내가 말한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마티?” 그녀가 묻는다. “네가 버스에 오르는 것을 샤일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네, 안 좋아해요.” 초콜릿파이에 시선을 둔 채 내가 말한다. 데이비드가 킬킬 대자 나는 또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녁식사 후 데이비드와 내가 밖에 나가 어두워질 때까지 다른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하워드 아저씨가 몇 가지 체스 수를 가르쳐 주었다. 그 후에 우리는 간식을 먹고 「머나먼 여정」이라는 비디오를 보았다. 그리고는 차례로 샤워를 하고 바닥을 닦아야 했다.

그날 밤, 데이비드의 방 이층침대 위 칸에 누웠는데 내가 향수병에 걸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우리 식구들에 대해 생각했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전화벨은 울렸는지,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 할머니가 이번엔 어떤 기막힌 일을 벌이셨는지, 그리고 샤일로가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문을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밤은 엄마가 샤일로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모르겠지만 한번은 샤일로가 다친 다리를 치료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내가 잠을 자는 소파에서 정말 일찍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방 건너편에서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샤일로를 무릎 위에 앉히고는 아기처럼 흔들며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나와 다라 린, 그리고 베키가 자라서 떠나게 되는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동안 침대 아래 칸에서 데이비드 하워드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나는 그가 이미 잠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피곤할 만하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몇 분마다 수시로 지나가는 차와 벽을 따라 움직이는 전조등 불빛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들었다. 침대에 옆으로 누워 막 눈을 감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벌건 눈과 녹색 입을 한 끔찍한 얼굴이 바로 옆 불과 5인치도 안 되는 곳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다. 머리가 뚱뚱 떠다닌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때 데이비드가 아래칸에서 까르르 웃었다.

“애들아, 좀 조용히 해라.” 방문 너머로 하워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서 나는 사다리를 타고 살금살금 내려가 팔을 툭 치면서 그의 침대로 들어간다. 데이비드는 머리를 이불 속에 파묻고 크게 웃어 대고 있다.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조용히 속삭인다.

데이비드가 고무로 된 할로윈 마스크를 보여준다. 그 마스크를 쓰고 손전등을 턱에 갖다 댄다. 그리고 뒤를 돌아 마스크에 불을 비추자 마치 뚱뚱 떠다니는 얼굴 같았다. 이 마스크를 다라 린에게 써먹을 생각을 하니 조바심이 난다.

우리는 데이비드의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학교와 저드 아저씨가 다른 사람과 싸웠다는 마이클 솔트의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저드 아저씨가 최근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의 추측, 즉 그가 거울을 보고 거기에 비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데이비드에게 이야기해 준다.

데이비드는 한쪽 팔을 괴고 누워있다. 어둠 속에서 데이비드의 얼굴을 겨우 알아볼 수 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그가 말한다.

“뭐?”

“저드 아저씨는 뱀파이어야!” 데이비드가 말한다. 그의 눈이 얼굴에서 튀어 나올 것만 같다. 데이비드도 그게 터무니없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의 상상력은 끝날 줄 몰랐다.

“말도 안 돼.” 내가 말한다.

“뱀파이어는 거울을 ‘싫어해.’ 그들이 거울을 보면 죽게 돼.”

“그가 만약 뱀파이어라면 거울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거야!” 내가 데이비드에게 말한다.

“아!” 데이비드가 짧은 탄식을 하고나서 다시 눕는다. 일분이 지나자 데이비드가 다시 벌떡 일어난다.

“늑대 인간이야!” 그가 말한다.

“데이비드, 넌 우리 할머니만큼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하고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할머니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다시 흥분한다. “그럴 줄 알았어, 마티! 거울을 봤더니 털과 송곳니를 본 거야. 그래서 약간 미쳐버린 거지. 그걸 알아낼 유일한 방법은 말야...”

나는 데이비드가 무엇을 말할지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알고 있다.

“내일 밤에 너희 집에 갈 거야. 그때 저드 아저씨를 살펴보러 가자. 알았지?”

“알겠어.” 내가 그에게 대답한다.

데이비드는 나처럼 더 이상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가 늑대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저 아저씨를 염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그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층침대에 다시 기어 올라갔고 잠시 후 데이비드가 코고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도 곧 잠이 들었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밤중에 크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눈이 번쩍 뜨였고, 그 외침이 메아리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침대가 우리 집 소파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고 폭신했다. 그제야 나는 데이비드 하워드네 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리 지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혹시 데이비드를 깨우지는 않았는지.

꿈은 너무도 현실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어슴푸레한 빛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새벽녘인 듯 했고, 엄마가 일어나서 샤일로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고, 샤일로는 현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휴, 샤일로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자연스러웠지만, 집 근처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덩불 속에서 기다란 막대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본다. 마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나는 나무막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건 총이다. 샴일로를 겨냥한 총.

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고함쳐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꿈이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방 문이 찰각하고 열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라도 내야 했다.

“무슨 일 있니?” 하워드 아저씨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린다.

“아뇨, 괜찮아요.” 내가 대답한다.

하워드 아저씨가 다시 문을 닫고, 나는 시계를 본다. 4시 15분. 빨리 불을 켜고 나의 개를 보러가고 싶다.

넷

다음날 아침 아빠가 지프를 타고 나를 데리러 왔다. 일주일에 여섯 번, 아빠는 시스터스빌에서 이백 사십 가구의 우편물을 받아 배달을 한 후, 프렌들리 외곽의 삼백 육십여 가구의 우편물을 더 받는다.

물론 우리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는다. 아빠가 데이비드의 집과 우리 집 사이의 모든 우편함에 들를 때마다 나는 잠깐씩 기다려야 했다.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나는 아빠를 위해 기꺼이 우편함을 열고 우편물을 집어넣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끔씩 아빠를 위해 우편함에 넣어두는 바나나 빵 한 덩어나 애플파이 반 조각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빠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배달을 해 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설이 내리는 저녁 일곱 시에도 아빠는 지프에 올라타 우편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아빠 옆자리에 미끄러지듯 앉자마자 데이비드 하워드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묻는다. “샤일로는 잘 있어요?”

아빠가 다음 집으로 지프를 몰고 가면서 말한다. “오늘 아침 내가 볼 땐 좋아 보이던데, 왜 그러니?”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대답한다.

“데이비드와 재미있게 놀았니?”

“네, 항상 그렇죠.”

엘리슨 아주머니는 거의 매일, 아빠를 위해 케이크 한 조각을 우편함에 넣어 놓기 때문에 나는 곧 다가올 그녀의 우편함을 기다린다. 말할 것도 없이 아줌마네 우편함에 손을 집어넣어 포일에 싸인 빵 한 덩이를 끄집어낸다. 벌써부터 입

에 침이 고인다. 그리고 엘리슨 아주머니가 붙여둔 라벨을 읽는다. ‘호박빵’이라고 적혀있다.

“왜 빵을 일부러 맛없게 만들죠?” 내가 묻는다. “케이크에 호박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빠는 그저 빙그레 웃는다. “한번 먹어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걸.” 아빠가 말한다. 하지만 나는 하워드 아줌마가 우리에게 아침으로 만들어준 피칸 와플만으로도 충분히 오전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다음 우편함에 넣을 우편물을 준비한다. “웨스트버지니아에 덴버가 두 개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내가 묻는다.

“두어 개 더 있다고 해서 날 놀라게 하지 마라.” 아빠가 말한다.

“어떻게 하나의 주에 같은 이름을 가진 곳이 두 개나 있을 수 있죠?” 내가 묻는다.

“만약 어떤 장소를 달리 특정하지 않으면 그곳을 네가 가장 원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단다. 원한다면 우리 동네를 덴버라고 부를 수 있지.” 아빠가 말한다.

“뉴욕시나 시카고라고 불러도 되요?”

“그럴 수도 있겠지. 프렌들리 우체국장은 웃어댈 거고. 그게 다야.” 아빠가 말한다.

나는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엘리슨 아주머니가 알 수 있도록 빨간 깃발을 세우고 나서 묻는다. “아빠, 지난 토요일에 저드 아저씨네 갔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가 한숨을 내쉬다. “그냥 저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자, 마티.”

“아저씨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 좀 마신 것 같더라.”

“우리 숲에서 사냥을 했다고 하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오, 그는 자기가 지금껏 가진 최고의 사냥개를 네가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더라. 말도 안 되지, 마티.”

하지만 나는 가슴이 조여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다.

“나는 그 개를 정정당당하게 얻었어요!” 내가 말한다.

“물론이지. 저드가 그냥 지결인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너와 베키, 그리고 다라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숲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초지에도 가지 말거라. 다음에 또 총소리가 들리면 내가 직접 올라가 확인할 거다.”

내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9월의 따뜻한 날,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부드러운 바람이 한 쪽 창문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쪽 창문으로 빠져 나간다. 우리 집 진입로까지 올라갔을 때, 이번에는 아빠와 함께 다리를 건너가서 저드 아저씨가 사는 길에 우편물 돌리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는다. 저드 아저씨가 내심 양심을 품고 있다면, 샬로에 대해 다시 한 번 말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만약 우리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녹슨 자국이 있는 지붕에 흰색과 갈색이 섞인 저드 아저씨의 오래된 트레일러에 다가갔을 땐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저드 아저씨네 개 세 마리가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가 사냥하러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개들은 지프를 보면 미친 듯이 짖어댄다. 뛰고, 으르렁거리고, 짖고, 이빨을 드러내며 쇠사슬을 잡아당긴다.

나는 저드 아저씨가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고 문을 쳐다본다. 그의 트럭이 저기 있다. 하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흔적도 없고, 오늘 아침 개들에게 밥이나 주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저드 아저씨는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가 보죠?” 지프가 다시 출발할 때 내가 묻는다.

“이 주에 한 번 정도 일하는 것 같구나.”

“저드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해요?” 나는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 같은 사람은 어떤 직업이 어울릴지 생각해 보려했다. 어쩌면 방울뱀 조련사. 아니면 악어 씨름 선수...

“정비공이란단다.” 아빠가 말한다. “웰런스 정비소에서 트럭이나 차를 고치는 일을 한다. 정비를 아주 잘한다고 하더구나.”

나는 사람이 어떤 일은 아주 잘 하지만, 다른 일은 아주 썩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차나 트럭 엔진을 고치는 일에는 뛰어나지만, 개와 사람한테는 끔찍한 것처럼 말이다.

물이 도로로 흘러 들어오는 냇가에서 몇 마일 더 내려가면 아빠의 담당 구역이 끝나게 되고, 그 곳에서 우리는 되돌아 나온다. 오래된 방앗간 옆으로 다리를 건너 후, 아빠는 아직 두어 시간 더 배달을 해야 하므로 나는 우리 우편물과 호박빵을 들고 집으로 향한다.

다리가 몸 밑에서 날아오르는 듯한 샤일로가 나를 만나러 달려온다. 호박빵을 조금 떼어 주니 꿀꺽 삼켜 버린다. 무엇이든 먹어 치울 것처럼 보인다. 시금치와 방울 양배추로 만든 빵 조각을 주더라도 게걸스럽게 먹고는 더 달라고 조를 것이 분명하다.

나는 샤일로의 옆에 붙어서 진입로로 걸어 올라간다. 나는 샤일로는 어떻게 항상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한다. 항상 필쩍 뿔 준비가 되어있고,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바보 같은 짓도 다 한다. 피곤하던지, 아니면 밖이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샤일로는 문가에서 함께 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개를 소중하게 대해주면, 평생 친구가 될 것이다.

확실히 여동생들보다는 성격이 좋다. 가끔 아침에 일어난 다라 린은 살짝 결눈질로만 쳐다보아도 팔을 부러트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머피 선생님의 집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엄마가 칠면조 샌드위치를 주기를 기다렸다가 점심을 먹는다.

“데이비드 오빠네 집에서 뭐했어?” 다라 린이 빵을 입에 가득 물고 묻는다.

“이것 저것.” 다라 린에게 말한다.

“하워드 아줌마가 근사한 저녁 주셨니?” 엄마가 묻는다.

나는 고작 열한 살이지만, 엄마가 다른 사람의 음식에 대해 물을 땐 정말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초콜릿 과이가 맛있었어요.” 내가 말하자 베키와 다라 린이 왜 우리는 한 번도 초콜릿 과이를 먹지 못했냐고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다른 건 특별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끝낸다.

“뭘 주셨니?” 엄마들은 ‘세세하게’ 다 알아야 한다.

“고기 같은 거요, 제 생각에는요. 채소도 있었구요.”라고 엄마에게 말한다. 그 이후에 엄마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샤일로는 나를 따라 머피 선생님 집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진입로 끝에 다다르기도 전에 나는 오른쪽에서 다리를 건너오는 저드 아저씨의 픽업트럭을 발견한다. 트럭이 진입로 끝자락에 다가와 멈춘다.

쿵... 쿵... 쿵... 가끔씩 심장이 쿵광거리거나 무릎이 후들거릴 때, 또는 둘 다 일 때 말을 하기가 힘이 든다. 이제 와서 되돌아가는 건 겁쟁이처럼 보일 테니 계속 걸기로 한다. 하지만 샤일로는 걸지 않는다. 샤일로는 완전히 멈춰 서있다.

“어이, 마티!” 저드 아저씨가 트럭 문을 열고 한쪽 발을 내려놓는다. “이리 와 보거라.”

나는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른다.

“왜요?” 내가 묻는다.

“보여줄 게 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저드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 트럭 뒤편으로 돌아간다. 아저씨가 뒤쪽을 가리켜서 나도 내려가 뒤쪽으로 간다.

“저길 봐라.” 저드 아저씨가 말한다.

누군가가 못이나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저드 아저씨의 트럭 번호판에서부터 오른쪽 문까지, 페인트에 길고 깊은 흠집을 만들어 놓았다.

나는 작게 휘파람을 분다.

“누가 내 트럭에 이런 짓을 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는 뱀보다도 추하다. 얼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행동이 비열하다는 뜻이다. 저드 아저씨는 결코 비열하거나 자신이 나빠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눈은 온통 충혈되어 있고, 숨을 내쉴 때는... 휴! 맥주병에 코를 들이밀었을 때 나는 냄새가 바로 그의 냄새다.

나는 고개를 흔들다.

아저씨가 나를 잔뜩 노려본다. “이런 짓을 할 만한 녀석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알아보고 누가 내 트럭을 긁었는지 알게 되면 얘기해라. 알겠지?”

“알겠어요.” 나는 대답은 하지만 어느 것도 약속하지는 않는다.

저드 아저씨는 픽업트럭을 타고 가버리고, 샤일로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가 타일러 카운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을 너무도 두렵게 하기 때문에, 설사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더라도 혹시나 무언가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게 만들 정도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끔찍한 일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고는 그것을 즐겼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나는 데이비드와 내가 오늘 밤 저드 아저씨의 집에 몰래 가서 염탐하는 것이 과연 좋은 생각인지 자문해 본다.

나는 선생님 집으로 걸어 내려간다. 선생님은 집 안에 진료실이 있지만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토요일엔 환자를 받지 않는다. 선생님의 부인은 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선생님은 오직 그녀를 위해 잔디와 꽃을 가꾸려고 노력한다.

선생님은 샤일로가 셰퍼드에게 물려 찢어진 상처를 치료하느라 내가 진 빚을 대략 99달러 정도로 계산한다. 나는 한 시간에 3달러를 받고, 매주 토요일 세 시간씩 일한다. 지금까지 두 번 일을 했고, 이제 아홉 번이 남았다.

“그 환자는 좀 어떠니?” 선생님이 내가 오는 것을 보자 현관으로 걸어 나오면서 묻는다. 살집이 좀 있는 편인 선생님은 우리 개를 쓰다듬어주거나 꿰뚫던 곳이 팬찮은지 보려고 몸을 숙일 때에는 꿈 하고 앓는 소리를 낸다. 선생님의 친구 중 한 명이 세인트 메리즈에서 수의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샤일로가 다친 후에 자신이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지 그 친구에게 확인을 했다.

“좋아 보이는구나, 샤일로.” 그가 말한다. “이제 고비는 넘겼다.”

선생님은 오늘 마당 한쪽에 있는 관목들을 해를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심기를 원한다. 그가 잠시 동안 땅을 파고, 그 후에 내가 판다. 샤일로는 그저 그늘 아래 풀밭에 누워 입을 벌리고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고, 우리는 샤일로가 우리가 일하는 걸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웃는다.

“개 팔자가 상팔자다.” 머피 선생님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멈추면서 말한다.

내가 만약 샤일로를 저드 아저씨에게 돌려보냈다면, 샤일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다. 설령 샤일로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샤일로는 도망칠 때마

다 저드 아저씨는 그를 발로 차거나 밥을 굶기곤 했을 것이다. 쇠사슬로 묶여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고 짖어대던 저드 아저씨의 나머지 세 마리의 개들이 생각난다.

선생님이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하고, 나는 그가 삽 끝으로 뿌리 아래쪽을 파는 동안 나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

“선생님은 저드 아저씨네 개들이 앞으로든 계속 망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묻는다. “제 말은 쇠사슬로 개를 묶어 놓아서 한번 사납게 변해 버리면, 그 개는 앞으로든 계속 사납게 될까요?”

“잘 모르겠구나, 마티.” 선생님이 대답한다. “나는 가끔 사람과 동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저 사람은 다리가 두 개고, 동물은 다리가 네 개라는 것 뿐이지. 어쩌면 그게 다일지도 모르지. 나는 어떤 개나 사람들은 포악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단다. 어쩌면 혈관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그가 마지막으로 앓는 소리를 내며 더러워진 몸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 수는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짐작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주 사소한 친절함이 사람이나 짐승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언하지는 않는다.”

나는 마지막 개나리 나무를 땅에서 들어 올려 선생님 집의 진입로 반대편에 미리 준비해 둔 구멍으로 가져 간다. 그 나무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한다. 선생님은 오늘 저녁 힐링에서 열리는 교향악 연주회에 가야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단단하지 않은 구멍에 흙을 채워 넣고, 나무가 똑바로 서있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한다.

일을 마쳤을 때, 마치 나이 든 사람처럼 느껴지고 등이 아팠다. 네 시에 집으로 향했고, 엄마는 내게서 냄새가 난다고 했다. 데이비드가 도착하기 전에 목욕을 했기 때문에, 데이비드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장미같이 달콤한 냄새가 났다. 샤일로로는 데이비드를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워드네 차를 보고 절대 짖지 않는다.

“방금 목욕했니?” 내 머리가 곱게 매만져져있는 것을 보고 데이비드가 묻는다.

“장미’처럼 달콤하지.” 나는 ‘아’를 길게 발음하면서 그의 얼굴에 겨드랑이를 들이 밀었다. “말아봐.”

데이비드가 웃으면서 나를 밀어낸다.

데이비드와 내가 차례로 너도밤나무에 걸어둔 자루로 만든 그네를 타는 동안 엄마가 밖으로 나와 하워드 아줌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

데이비드가 근처에 있는 단풍나무의 큰 나뭇가지에 기어 올라가 앉는다. 그리고 나는 너도밤나무에 밧줄로 묶여있는 자루를 최대한 높이 던져 데이비드에게 건네어준다. 데이비드가 줄을 잡고 짚으로 채워진 자루를 다리로 감은 뒤 필사적으로 줄에 매달려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네가 땅으로 급강하했다가 다른 쪽 공중으로 올라간다.

“와아!” 데이비드가 소리 지른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나는 데이비드와 내가 나중에 하려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없기 때문에 다라 린과 베키가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동생들은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귀여운 척을 한다.

베키가 데이비드를 위해 ABC송을 불렀는데, 항상 “L-M-N-O-P”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잊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다라 린이 함께 부르기 시작하고, 다라 린의 딱지와 명을 보여준 후에 농담을 던진다.

“외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라 린이 씨익 웃으며 묻는다.

“몰라.” 데이비드가 대답한다.

“신용카드를 없애버려!” 다라 린이 큰소리로 말한다.

다라 린은 신용카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때 엄마가 후식으로 사과 경단을 주었고, 우리는 경단이 식기 전에 그 위에 우유를 부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 한 개까지 다 먹고 나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훑는다.

“너희 둘, 오늘 저녁에는 뭐 할 거니?” 엄마가 상을 치우면서 묻는다.

“그냥 밖에서 놀 거예요.” 내가 대답한다.

데이비드 하워드에게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분명 데이비드의 머릿속은 탐정이야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방충망을 단자마자 그가 내 쪽으로 몸을 틀고 묻는다. “저드 트레이버스 아저씨 집에 가려면 얼마나 걸려?”

다섯

나는 데이비드 하워드가 커서 탐험가나 탐정, 아니면 스파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데이비드는 덤불 숲 아래로 기어가거나, 배를 대고 미끄러지거나 또는 나무 뒤에 숨는 게임을 언제든지 하고 싶어 한다. 자기네 집보다는 우리 집에 숨을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데이비드 하워드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좋아한다.

아빠는 베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고, 다라 린은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있다. 내가 집안일에서 면제받은 유일한 이유는 나에게 손님이 있다는 것이고, 다라 린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틀 밤 연속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저드 아저씨네 집까지는 걸어서 이십 분에서 이십오 분 정도 걸려.” 내가 데이비드에게 말한다.

“좋아. 물통과 지도, 그리고 쌍안경이 필요하겠어.” 데이비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지도?” 내가 묻는다. “데이비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다리를 건너 저드 아저씨네 집까지 길을 따라 걷는 것 뿐이야.”

“‘우리’가 가는 방식은 달라!” 데이비드가 말한다. “우리가 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을 누가 보게 될 텐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염탐할 수 있겠어?”

나는 데이비드 하워드를 만족 시켜주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낡은 봉투 뒷면에 다리와 오래된 샤일로 학교 건물, 저드 아저씨가 사는 길, 그리고 누군가의 집 뒤편에 있는 숲 속의 사설 묘지까지 그려진 지도를 만든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물통과 하워드 아줌마의 쌍안경을 가져 왔고, 나는 우리가 지금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다라 린이 설거지를 끝낸 후에 우리와 함께 가겠

다고 조를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샤일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샤일로는 종종걸음으로 진입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우리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 확신이 서지 않는지 잠시 멈추었다가 다리까지 가는 내내 우리보다 10피트정도 뒤쳐진다.

우리는 도로 위에 생긴 포트홀을 보기 위해 멈춘다. 그 구멍은 지난 봄에 생겼다. 깊이는 7인치 정도 되고, 둘레는 3피트 정도는 될 것 같다.

“와!” 데이비드 하워드가 말한다. “마티, 이건 마치 싱크홀같아! 분명 저 아래 동굴이 있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 아직 한 번도 탐사되지 않은 동굴로 들어가는 숨은 입구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물론 강둑을 기어 다니고, 풀과 덩불사이를 뚫고 다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새로운 동굴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읽는다. 아마 그가 목초지를 걷다가 발이 구멍 속으로 빠진다거나, 그의 개가 그 속으로 떨어져, 개가 짹짹거리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여기 이 길 아래에서 통로와 폭포와 어떤 물질이 있는 동굴을 발견한다면, 그 동굴을 하워드-프레스턴 동굴이라고 이름 지을 것이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동굴을 찾느라 아직 햇빛이 남아있는 삼십 분의 시간을 보내고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샤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목구멍 사이로 짹짹거리는 불쌍한 소리를 낸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더니 우리 진입로를 향해 슬그머니 도망친다. 아직도 얼마나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를 두려워하는지 보면 마음이 아프다. 샤일로는 타일러 카운티에서 토끼를 쫓다가도 그 다리에는 발을 딛지 않을 것이다.

“갔다 올게, 샤일로.” 내가 말한다. 샤일로를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는 저드 아저씨네 집으로 길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데이비드가 멈추어 서서 물통의 물을 한 모금 마시지만 목마른 게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목마른 척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쏙살같이 달리고, 다음 나무로 달려가기 전에 개울가에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도로와 개울 사이의 덩불속을 따라 기어간다. 개울가의 도로 위아래로 모두 사람이 없다. 물론 현관에 앉아있는 노부인만 빼고는 밖에 아무도 없지만, 그녀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 우리를 보지도

못할 것이다.

스파이가 말하는 것은 역시 재미있다.

“에이전트 XRX. 에이전트 XRX. 응답하라, XRX.” 주먹을 마이크처럼 입에 대고 데이비드가 말한다.

“알았다 QZT.” 내가 말한다.

“얼마나 더 가야해?” 데이비드가 묻는다.

“아마 한 다섯 집정도. 흰색과 갈색으로 된 트레일러야.”

문제는 집들이 모두 위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드 아저씨의 트레일러가 일직선으로 바로 다음에 있더라도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다.

“묘지까지 지름길로 가자.” 데이비드가 말한다.

우리는 길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집 뒤로 돌아, 어느 부인의 뒷마당을 기어서 지나갔고, 왼쪽에서 불쑥 불쑥 나타나는 언덕들을 마치 적의 총탄을 피해 날쌔게 움직이는 군인들처럼 등을 굽힌 채 달려갔다. 우리는 주위에 낮은 쇠 울타리가 둘러진 작은 묘지의 구역을 지나간다. 실제로는 겨우 2피트 높이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 수 있다. 도날슨 가의 모든 가족이 저기 묻힌 것 같다. 그중 하나를 제외하고 묘비명이 모두 도날슨이다.

“잠깐!” 데이비드 하워드 가 내 팔을 잡으며 말한다.

내가 멈춘다.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지?” 그가 묻는다.

“몰라.”

데이비드가 손가락에 침을 묻혀 공중에 든다. 그래도 확실치 않자, 한 줌 가득 풀을 던져 그것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지켜 본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탄 것처럼 데이비드가 눈을 크게 뜨고 말한다.

나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묻는다. “개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냄새 맡을지도 몰라.” 한쪽에는 언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들 아일랜드 개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저드 아저씨네로 다가갈 수 있는 빠른 길은 없다.

“정말 조용히 해야 해.” 데이비드가 말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갈까, XRX?”

“좋아.” 내가 그에게 말한다.

저드 아저씨네 트레일러까지 50야드 정도 남았다. 우리는 배를 땅에 대고 옆드린 채 그의 마당 옆 들판에 난 2피트 높이의 풀을 따라 조금씩 움직인다. 나는 아마도 엄마에게 티셔츠에 묻은 잔디 얼룩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고, 목욕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었다.

저드 아저씨네 트레일러에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현관이 보일 때까지 도로를 향해 꿈틀거리며 갔고, 그곳에 실제로 저드 아저씨가 엽총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계단에 나와 앉아있었다.

데이비드와 나는 서로를 붙잡고 침을 삼킨다.

운 좋게도 저드 아저씨의 개들이 다른 쪽에 묶여 있어서 우리를 볼 수 없었다. 오늘 밤 그 개들은 조용하다. 뇌가 얼마나 작던 또는 얼마나 사납건, 개들도 사람이 엽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단에 앉아 있다면 말썽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아저씨가 사냥 나가실 거 같니?” 데이비드가 속삭이며 묻는다.

“아닌 거 같은데.” 내가 껏속말로 대답한다.

두려운 것은 저드 아저씨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총을 뒹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앉아있다. 그리고 간혹 침을 뱉는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어쩌면 트럭을 굶은 사람? 누군가 찾아와 다시 그리길 기다리는 걸까?

데이비드 하워드가 다시 앞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고, 나는 그가 그러지 않길 바란다. 나는 옆으로 올라가서 그를 뒤로 잡아당긴다.

우리는 그때 저드 아저씨가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때때로 무릎을 치거나 고개를 흔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기 전까지는 조용하다. 그가 조금 전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가 갑자기 총에 손을 대더니 들어 올렸고, 나는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 근처 어디에도 오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저드 아저씨는 총을 들고 앞마당에 있는 나무를 향해 겨눈다. 처음에 나는 그가 너무

취해서 나무를 사슴이나 다른 동물로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들자 그 나무줄기 위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는 다람쥐 두 마리가 보였다.

저드 아저씨가 총을 들고 겨냥한다.

뽕!

다람쥐 한 마리는 반쯤 정신 나가서 나무 위로 재빨리 뛰어 올라가고, 다른 한 마리는 밑으로 곧장 떨어져 마당에서 퍼덕퍼덕 거린다.

나는 그 장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얼굴을 팔에 묻고 그 다람쥐가 빨리 죽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이제 아저씨의 개들은 모두 으르렁거리며 짖느라 정신이 없고, 그 위로 아저씨가 웃는 소리가 들려온다.

“잡았다!” 그가 소리 치면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일어나 다람쥐를 잡으러 가지도 않을 뿐더러 다람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으로 쏘지도 않았다. 나는 잼싸게 다람쥐가 아직도 꿈틀거리는지 본다. 그러나 다람쥐는 가만히 누워 꼬리만 썰룩이며 경련한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나는 속으로 묻는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저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이 총으로 쏘아 되는 걸까? 저드 아저씨가 계단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다람쥐 스투 같은 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저씨가 입 밖으로 또 침을 뱉는다.

다른 다람쥐가 자기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려고 밑으로 내려오자 저드 아저씨가 다시 총을 든다. “안 돼요, 하지 말아요!” 내가 소리친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데이비드가 내 머리를 밑으로 누른다. 저드 아저씨가 몸을 획 돌렸다.

“누구야?” 그가 소리치지만 말은 또렷하지가 않다. “거기 누구야?”

그가 계단에서 일어나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내 심장은 가슴의 살갓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린다. 데이비드와 나는 공공도로를 걸어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저드 아저씨의 사유지에 배를 대고 누워있고, 저드 아저씨는 침을 뱉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목을 조를 수 있다. 아저씨는 우리가 무단 침입을 했고, 도둑질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할 것이다.

“꼭 마티 프레스틴 같은데.” 아저씨가 말한다. 나는 누워있는 곳에서 턱을 땅에 대고, 눈을 최대한으로 위로 치켜뜨고는,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찾아내려고 이리저리 돌아보는 저드 아저씨를 쳐다본다. “너 여기서 뭐하는 거냐?” 그가 다시 소리친다. “너희 아빠는 내가 너희 땅에서 사냥하도록 두지 않는데, 너는 내 땅에서 뭐하는 거냐?”

나는 옆머리를 땅에 대고 가능한 한 내 몸을 납작하게 붙인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라고는 엄마가 데이비드와 내가 머리에 산탄이 박힌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다. 이번 일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멍청한 짓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드 아저씨의 오래되고 커다란 부츠가 마당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는 판자를 따라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뒤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생각한다. 큰 소리로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말할까? 그리고는 아저씨의 땅에 배를 납작하게 대고 지나가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한다. 나는 마른침을 삼킨다.

발소리가 멈추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 머리를 약간 기울여서 한쪽 눈으로 보니 저드 아저씨가 휘청거리며 트레일러 끝으로 멀리 사라진다. 한 손으로는 몸을 지탱하느라 트레일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총을 들고 있다.

“내 트럭에 장난치는 널 잡고 말테다, 마티 프레스틴. 널 완전히 폭파시켜 버릴 거야!” 그가 소리친다.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긴 2분이 지나고 아저씨는 다시 트레일러 계단으로 돌아가 안으로 들어간다.

데이비드와 나는 거의 숨도 쉬지 않은 채 말 없이 풀밭에 누워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저드 아저씨가 혹시 창문 밖으로 엽총을 겨냥하고 잡초가 꿈틀거리는 것을 감시하지는 않을까 계속 걱정하면서 우리가 들어왔던 방향으로 천천히 풀밭을 빠져나온다.

마침내 라일락나무 뒤로 가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도날슨 가족의 작은 묘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고, 거기에서부터 도로로 급히 되돌아나갔다.

우리는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가쁜 숨을 몰아쉰다.

“...그게 우리였을 수도 있었어...”

“너무 가까웠어…”

“…다람쥐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거길 가지 말았어야 했어…”

“…아저씨가 너인 줄 알아, 마티…”

데이비드와 나는 둘 다 속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저드 아저씨가 다람쥐를 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다람쥐 사냥철은 다음 달 이후에나 시작하기 때문에 저드 아저씨가 사냥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것이다. 오리 사냥철은 10월에 시작되고, 사슴 사냥철은 11월에 시작된다…. 하지만 개는? 개 사냥철에 대해서는 규정에 한 마디도 없다. 저드 아저씨는 늘 그랬던 것처럼 매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이제는 그의 트럭을 굶은 사람이 나라고 의심하며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샐리로 사냥철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언제든 될 수 있다.

여섯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데이비드 하워드도 그랬다. 데이비드가 우리 집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올 때마다 엄마는 소파를 펼쳐서 더블 침대를 만들어주지만, 매트리스 안 중간에 막대기가 있어 가끔 무릎을 부딪힌다.

그러나 샤일로는 그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자는 것을 좋아한다. 밤에 자다가 눈이 떠져서 일어나보면 발 위에서 자고 있다.

아직 집은 고요한 가운데 데이비드와 나는 일찍 일어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데이비드가 묻는다.

“다람쥐 말이야?” 내가 묻는다. 데이비드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저드 트레이스 아저씨에 대해 아는 것을 데이비드도 알아야 한다.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여기서 프랜들리까지 걸어가다 보면 길가에 죽은 동물을 대여섯 마리는 보게 되는데, 사냥철이 아닌 기간에 다람쥐를 쫓다고 누가 벌금 물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다람쥐를 죽이는 것과 사슴을 죽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일 년에 사슴 몇 마리만 사냥할 수 있다. 다람쥐 사냥철에는 하루에 여섯 마리를 잡을 수 있다! 사냥철이 아닐 때에는 한 마리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느 수렵 감시인도 다람쥐 한 마리 때문에 이곳까지 운전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드 아저씨는 어제 그가 했던 식으로 다람쥐를 많이 죽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이 우리를 역접게 했다. 다람쥐가 죽어가는 동안 마당에서 퍼덕거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즐거워하던 그의 모습. 저드 트레이버스 아저씨는 어렸을 때 도대체 어떤 아이였던 것일까? 나는 궁금해진다. 열다섯 살 때, 그는 어떤 아이였을까? 나는 작은 생명의 고통을 보며 거기에 앉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아들을 기르는 그의 엄마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골똘히 생각해 본다.

“너희들 게임하느라 밤새 한숨도 못 잔 모양이지? 배도 별로 고프지 않아 보이는구나. 베이컨에는 손도 안대고 있네.” 엄마가 말하는 걸 보면 아침 식사 시간에 우리가 아주 피곤해 보인 것이 틀림없다.

데이비드와 나는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잠이 다 깬고, 배도 고프다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 베이컨 조각으로 손을 뻗는다. 엄마의 비스킷은 역시 맛있다. 나는 데이비드에게 꿀 한 숟가락과 마가린 한 숟가락을 넣어 섞는 법을 보여준다. 걸쭉하게 될 때까지 저은 후에 갓 구운 비스킷에 퍼 바른다.

우리는 데이비드의 아빠가 그를 데리러 올 때까지 자루로 만든 그네를 타고 논다. 마침내 다라 린이 일어나 창문 밖으로 우리를 내다보지만 우리의 소리가 베키까지 깨우진 못했다. 베키는 침대 옆에 관악대가 있어도 잘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네 집은 감리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집에 가서 우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월요일에 학교에서 보자.” 데이비드가 그의 아빠 옆 자리에 오르면서 말한다.

“마티 잘 지냈니? 너희들 재미있게 놀았니?” 하워드 아저씨가 묻는다.

“네.” 우리가 대답한다. 정말 재미있게 놀았지만, 우리 눈 앞에서 다람쥐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주로 집에 있다. 아빠는 하루 종일 집에서 현관 그네에 앉아 다라 린과 베키에게 만화책을 큰소리로 읽어줄 것이다. 아빠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우리를 웃게 만든다.

엄마는 보통 텔레비전으로 조나스 수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지금은 부엌에서 빵을 만들고 있다. 엄마는 우리들 다음으로 일요일에 빵 굽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

엄마는 말은 안하지만 빵 굽는 것 보다 아빠를 더 사랑한다. 오늘 아침 아빠가

만화책 읽어주는 것을 듣고 난 후에 엄마가 빵 모양을 잡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엄마는 평소 아주 좋아하는 컨트리 송을 부르고 있다.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모두 당신에게 쓸게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우울할 때 힘을 북돋우기 위해,
내가 행복할 때 함께 웃기 위해,
왜냐하면 당신이 진실한 걸 알기 때문이지요.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사랑,
모두 당신에게 쓸게요.”

나는 엄마가 노래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짓고, 엄마도 미소로 답한다.

나는 걱정이 있다는 것을 털어놓지 않도록 애쓰면서 엄마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식탁 위에 숙제를 펼쳐놓고 수학 문제를 푼다.

곱셈:	687	1029	3998
	× .33	× .012	×7.5
	_____	_____	_____

나눗셈: 687 나누기 .33 1029 나누기 .012 3998 나누기 7.5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3998개의 어떤 물건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7.5로 나눠야 할 일이 있을지 엄마에게 묻는다.

“마티, 그럴 일이 없더라도 수학은 너의 사고를 도와준다.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지.” 엄마가 대답한다.

나는 수학이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매일 밤 자정까지

잠 안자고 수학 공부를 할 것이다.

사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저드 아저씨가 어찌면 나 때문에 술을 마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 여름 2주 동안 그를 위해 일을 했고, 그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 그의 개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나는 저드 아저씨가 내가 이제 오지 않는 것을 조금은 아쉬워한다고 느꼈다. 오후에 그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대화할 누군가를 찾지 못할 것에 대한 아쉬움.

지금 당장 돌아가 그를 만나겠다고 생각했다. 어찌면 샤일로도 함께 말이다. 하지만 샤일로그 스스로 그 다리를 다시 건너도록 하진 못할 것이고, 나도 저드 아저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곧 사라져버렸다.

오후 한 시쯤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일요일 점심을 먹고 난 후 아빠는 낮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고, 다라 린은 그네 위에서 종이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고, 베키는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그리고 엄마는 누워서 잡지책을 읽고 있다. 나는 저드 트레이버스 아저씨네 집으로 출발한다. 내가 몰래 숨어 들어갔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에게 가서 어제 밤 내가 그쪽에 갔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이번에 저드 아저씨는 트럭을 손보고 있다. 트럭 후드를 열고 오일을 갈고 있다. 오늘은 술을 마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아직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한다.

저드 아저씨가 흘끗 쳐다보더니 트럭 후드 아래에서 일을 계속한다. “여기는 어떤 일이냐?” 그가 묻는다.

“그냥요. 그냥 개울가를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내가 대답한다.

“내 개는 잘 돌보고 있냐?” 아저씨가 묻는다.

그의 입에서 나온 바로 다음 말이 그것이었고, 나는 ‘내 개’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샤일로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대답한다.

“조만간 개를 데리고 들를 줄 알았다.” 저드 아저씨가 말한다. “왜 함께 오지 않았냐?”

어떻게 우리 개가 그를 벌침보다도 더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집에서 베키와 다라 린과 놀고 있어요.” 내가 말한다. “버릇 나쁘게 만들려고 걱정했나 봐요.”

저드 아저씨가 툭툭거린다. “개를 사냥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감각을 잃게 된다.”

“다음 달 사냥을 시작하면 아마 아빠가 샤일로를 데리고 갈 거예요.” 내가 말한다. “아직 사냥철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아저씨. 이맘때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사냥할 수 있는 건 비둘기뿐이잖아요.”

저드 아저씨가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띤다. “그래?” 그가 말한다. 그리고 형짚에 손을 닦으면서 다시 침을 뱉는다.

내가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 다람쥐의 잔해다. 다람쥐의 살점들이 저드 아저씨네 마당 곳곳에 널려있다. 오늘 아침 일어나 그 다람쥐 시체를 그의 개들에게 던져 준 것처럼 보인다. 비쩍 마르고 성질 사나운 그 개들이 서로 물어뜯고 으르렁 거리면서 주둥이로 조금이라도 더 피를 핥으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침을 삼킨다. “저기, 저드 아저씨, 사실은 뭘 좀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래?” 그가 말한다.

“데이비드와 제가—어젯밤 데이비드가 저희 집에 놀러왔었거든요—스파이 놀이를 했어요. 마당에서 났던 소리가 저희였어요.”

저드 아저씨가 이번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그런데 왜 대답을 안했니?”

“총을 갖고 계셔서 무서웠거든요.”

잠시 동안 저드 아저씨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이 정도의 정직함은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 그러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은 저드 아저씨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고 눈썹이 콧날 위로 모아진다.

“너는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스파이 놀이를 하러 그 먼 길을 왔다고? 넌 논 게 아니라 진짜 스파이 짓을 하러 온 거야. 너희 아빠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구나.”

“아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가 여기 왔었다는 것도 몰라요. 아저

씨 마당에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는 내가 말을 끝내지도 못하게 했다. 저드 아저씨는 이제 고함을 친다. “너와 그 녀석이 여기에 한번 왔다고, 너희는 더 많이 왔어. 너희 두 녀석은 놀이 외에 다른 생각을 갖고 내 집 근처에 몰래 숨어들어 와 대답도 안 했다. 난 바보 아니다. 내 장담하건대, 내 트럭을 굶은 게 너 아니면 그 녀석, 아니 너희 둘이겠지. 그리고 너희들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 정말로 방아쇠를 당길 거다. 난 내 사유지를 지킬 권리가 있어.”

“저드 아저씨, 저는…”

“집에 가라. 알아듣겠냐?”

저드 아저씨는 손에 렌치를 들고 거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기에 그저 흉한 모습에서 더 험상궂게 일그러졌고, 그 눈에는 다정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그가 “재수 없는 놈!”하고 소리치면서 앞으로 간다. 바로 그때 나도 돌아서서 집으로 향한다.

그래, 이제 할 건 다 했어. 나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돌을 세계 차서 미들 아일랜드 개울로 날려 버린다. 나는 진실을 말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봐.

내가 자신의 땅에 다시 온 걸 저드 아저씨가 보더라도 내게 정말로 총을 쏘 거라고는 믿지 않지만, 내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생명체를 쏘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나도 충분히 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밖에서 잔디 깎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빠가 잔디 깎는 기계에 가솔린을 붓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아빠가 묻는다.

“저드 아저씨가 저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게 아닌가 걱정돼요.” 나는 쉽게 돌려 말하려고 했다. 아빠는 데이비드와 내가 지난 밤 저드 아저씨의 집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아저씨보다 더 듣기 싫어할 것이다.

아빠는 내게 눈길을 주고 나서, 가솔린 캔의 뚜껑을 돌려 닫고 주변을 정리한다. “자,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샤일로를 얻고, 저드 아저씨네서 일한 뒤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저씨는 제가, 아니, 아저씨한테 말을 걸 사람이 찾아오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다 큰 어른이 열 한 살짜리 소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구나. 저드는 너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있는 거야, 마티. 그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단다.”

“하지만 아저씨는 샤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의 개를, 그리고 모든 걸 가져갔다구요.”

“저드에게 기회를 주면, 그는 아무 말이나 지껄일거야. 너도 알잖니. 내가 일을 해서 그 개를 얻었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저드도 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거니?”

“저는 아저씨가 언젠간 술을 먹고 샤일로를 쫓까봐 두려워요.”

“이런, 나는 저드가 술에 취해 소총을 가지고 우리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너희 중 하나라도 유탄에 맞지나 않을까 걱정된단다.” 아빠가 말한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나 걱정해라.”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샤일로를 지켜줬고—샤일로가 저에게 온 걸로 말이에요—만약 이제 샤일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한다. 아빠가 마당 한쪽 구석으로 잔디 깎는 기계를 밀어가자 나도 따라간다. “저드 아저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안돼요? 우리가 진짜 친구인 척 하면 안 될까요?”

아빠가 의문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보신다. “마티, 불과 두 달 전만해도 너는 저드 트래버스를 방울뱀보다도 더 싫어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를 집으로 초대하자고?”

“그냥 잘 지내보려구요.” 지금이 내가 저드 아저씨네 집에 갔었다는 것을 아빠에게 말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에 관해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멈췄다.

아빠가 잔디 깎는 기계의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아빠가 나를 똑바로 보지 않고 말한다, “사실은 지난주에 저드를 보러갔을 때 난 화가 많이 났단다. 자랑스럽진 않지만, 그랬단다. 내가 그에게 맥주 캔을 보여주면서 우리 숲과 들에 있는 표지판을 상기시켜 주었더니 나에게 막 욕을 퍼붓더

구나.”

나는 아빠를 빤히 쳐다본다. “아저씨가 아빠에게 욕을 했다고요?”

“그는 내가 내 땅에서 나 혼자서만 사냥하려고 하는 못된 이웃이라고 하더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많은 스킵크인줄 알았다면 너에게 그 개를 절대 주지 않을 거라고도. 그는 네게 그 개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사냥할 수 있다고 말하더구나.”

“말도 안돼요!” 나는 얼굴이 달아오른 채 소리쳤다.

“그래 나도 안다, 마티. 저드가 그 말을 할 땐 얼간망둥이처럼 취해 있었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다가 그가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다시 갔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도 짜증이 나고 화나긴 마찬가지였어. 나는 그가 또다시 우리 땅에서 사냥하는 걸 발견하면 보안관을 부르겠다고 말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은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에게 우리 땅에 오지 말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통고’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내가 물려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때 나는 스퀘이 놀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일 곱

집 주변은 정말 조용하다. 아빠는 결코 이웃의 원한을 사거나 다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빠를 괴롭힌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샬로가 즐겁게 뛰어놀고 달리도록 먼 목초지로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이다. 사슴 사냥철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표지판이 있던지 없던지 소총을 든 사냥꾼들이 가끔 목초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다. 산탄총의 산탄과 소총의 총알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샬로는 우리가 왜 목초지에 가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샬로는 신이 나서 앞으로, 왼쪽으로, 뒤로, 오른쪽으로 쉴룩쉴룩 뛰어다닌다. 목초지로 가는 길을 향해 달려가 나에게 쫓아오라고 깡깡거리며 운다. 나에게 길을 보여주려고 앞뒤로 뛰어 다니며 따라오도록 한다.

“샬로! 안돼!” 내가 말한다.

샬로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처럼 슬그머니 몸을 낮추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내린다. 샬로를 쓰다듬으려 몸을 아래로 뺨으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샬로는 검은색 래브라도와 어울려 노는데, 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니 보기 좋다. 그 둘은 함께 다니고 가끔 샬로는 하루 종일 놀고도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거머리와 진드기를 달고 돌아오지만 친구가 놀러오면 또다시 나가고 싶어 한다.

나는 학교에서 마이클 솔트에게 저드 아저씨가 벤스 런에서 싸운 이야기를 더 듣게 된다. 마이클은 그의 사촌이 말하길, 자신의 친구의 삼촌이 저드 아저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저드 아저씨는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약간씩 더하거나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드 아저씨가 술을 마셨고,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만약 보안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서로를 반쯤은 죽였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이 간다. 나는 저드 아저씨가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두 번이나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반 죽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9월 마지막 주에 텔벗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미래 상상하기”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다음 여름 방학 때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열 두개 학교의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그들이 커서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을 골라야 한다. 그것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직업을 고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떠할지 종이에 적어야 한다.

사라 피터스는 수영 선수로 정했다.

“수영선수?” 사라가 버스에서 이야기 할 때 내가 묻는다. “그건 어떤 직업이야?”

“수영 챔피언.” 그녀가 대답한다.

사라는 지난 여름에 미들본 근처 캠프에서 수영을 배웠고 자신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데이비드 하워드에게 어떤 직업을 고를 건지 묻는다.

“생물학자, 삼림 감시원, 아니면 축구선수.” 그가 대답한다. “아직 결정 못했어.”

나는 직업을 고르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바로 의사. 나를 즐겁게 할 만한 직업으로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그 주 토요일에 머피 선생님께 갔을 때 내가 고른 것을 말했지만 수의과대학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수의사 조수’라고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나에게 나무에 잠금 호스로 물을 주는 법, 즉 이십 분마다 어떻게 호스를 다른 나무로 옮기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지만, 수의과대학에 들어가려면 정말 힘들단다, 마티.” 그가

말한다. “하지만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단다.”

나는 집에 가기 전에 모든 나무에 물을 주었다. 데이비드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기 때문에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삼림 감시원이 될 거라고 리포트에 적기로 결심했고, 그의 아빠는 그가 질문을 하고 과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실제 삼림 경비초소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에 다시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가 평소처럼 클라크스버그에 살고있는 헤티 고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에게 문제가 생겼다.

“또 뭘 하셨대요?” 다라 린이 최신 소식을 몹시 듣고 싶어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엄마가 말하다가 곧 멈춘다. “다라 린 프레스턴, 2학년 아이들 전체가 이걸 알게 되기는 싫단다.” 엄마가 경고한다. “이건 ‘가족’ 문제야.”

“말 ‘안 할게요!’” 다라 린이 대답한다.

“저, 어머니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셨대요.” 엄마가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한다.

“손을 댔다고?” 아빠가 묻는다.

“간호사가 어머니 침대 옆의 서랍을 열었더니 안경 다섯 개가 발견됐대요. 어머니가 방마다 돌아다니며 모은 것 같대요.”

아빠가 웃음을 감추려 애쓰면서 크게 기침을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엄마가 말을 이었다. “다른 환자들이 ‘어머니’께서 훔쳐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나는 절대 늙지 않을 거야.” 다라 린이 말한다.

“글쎄,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란다.” 아빠가 말한다. “할아버지는 오래 사셨지만 아주 똑똑하셨단다.”

“외할머니도 그러셨어.” 엄마가 외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한다. “빛속에서 쿵을 주우러 다니시다가 폐렴에 걸리지만 앓으셨어도 지금까지 살아 계셨을거야.”

“똑똑하신 분이 왜 비를 맞으면서 쿵을 주우셨어요?” 다라 린이 묻는다.

나는 아빠가 입을 가리는 것을 보았지만 엄마는 약간 짜증을 낸다.

“우리 모두 지금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하면 안돼.” 엄마가 말한다.

“정말이야.” 아빠가 말한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마침 베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나와 밖에 놀러가려다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베키가 말한다. 베키는 송화구를 코 바로 밑에 대고 말하기 시작한다. “우리 할머니가…”

“베키!” 다라 린이 소리친다.

“베키에게서 전화기 뺏어라, 마티.” 엄마가 말한다.

내가 이미 몸을 뺐었지만 베키는 뒤를 돌아 벽을 보고 수화기를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여보세요.” 베키가 다시 말한다. “누구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듣는다. 저드 트레이버스.

“너희 아빠 바뀌라!” 그가 말한다.

내가 베키에게서 전화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면 베키는 큰 소리로 퍽 소리를 지른다. 베키가 다시 한 번, “누구세요?”라고 물을 수 있을 만큼 잠시 멈추었다가 또 소리를 지른다.

“내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부엌 전체에 저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말했듯이 너희 아빠 바뀌!”

아빠가 일어선다. 아빠는 수화기에서 베키의 오른손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고, 나는 왼손 손가락을 떼어낸다. 베키가 마지막으로 귀가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현관에 나가 시끄럽게 울어댄다. 베키 뒤로 방충망이 쿵 닫힌다.

“여보세요?” 아빠가 말한다.

우리는 가만히 기다린다.

“레이 프레스틴, 오늘 저녁 집에 와서 내 우편함이 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소. 굽힌 자국이 없는 것으로 봐서 누군가 실수로 후진하다 박은 건 아니오. 내 말은 당신 아들이 오늘 여기 와서 내 우편함을 뒤엎은 것 같소. 아마 당신 아들과 프랜들리에 사는 그 친구 녀석인 것 같소.”

나는 입을 벌리고 아빠를 응시한다.

“어째서 마티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오?” 아빠가 묻는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누군가 내 트럭을 긁고 갔고, 난 그게 마티라고 생각하오. 나는 그가 내일 여기 와서 새로 구멍을 파고 기둥을 시멘트에 고정시켰으면 좋겠소.”

“만약 마티가 그랬다면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소. 하지만 마티와 이야기 해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요.” 아빠가 말하고 나를 돌아본다.

“제가 안했어요, 아빠! 아저씨 트럭도 제가 긁은 게 아니에요!”

“아들아, 확실하니?”

“네, 정말이에요.”

“누가 그랬는지 아니?”

“아뇨.”

아빠가 잠시 나를 살피고서는 수화기를 귀에 다시 갖다 댄다. “마티는 안 했다는군, 저드.”

“내 사유지로 숨어들어와 나를 스파이 짓을 하는 녀석이 내 우편함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소?” 저드 아저씨는 이제 거의 소리를 질렀다. “그럼 그때 여기는 왜 왔는가? 당신 아들과 프랜들리에 사는 그 녀석 말이오. 그걸 한 번 물어보시오.”

“이봐. 저드, 마티에게 물어 보지. 만약 마티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 둘이 함께 건너가서 우편함을 고치겠네. 하지만 생사람 잡는 거라고 생각되는군. 최근에 자네가 운전하다 우편함을 여러 개 부순 일 때문에 누군가가 보복하는 것일 수도 있지. 내 생각에는 말일세.”

“글쎄, 나는 ‘당신네’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 우편함을 제대로 해놓기 전까지는 당신도 그리 편치 않을 거요.” 저드 아저씨가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다.

엄마와 다라 린은 먼저 아빠를 쳐다보다가 나를 쳐다본다. 베키 조차도 악 쓰는 것을 멈추고 무언가 놓칠까봐 두려워 방충망에 코를 납작하게 누른 채로 문 밖에 서 있다.

“마티, 나와 함께 밖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아빠가 말한다.

이런, 나는 내 입천장에 덩굴 옷나무를 넣는 것만큼이나 이 대화를 원하지 않

는다. 하지만 엄마는 베키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 현관에 있는 그네의자에 앉는다. 9월의 서늘한 저녁, 창문을 통해 나오는 네모난 노란색 빛이 바닥을 비춘다.

“저드가 한 말, 그러니까 너와 데이비드가 그의 사유지에 가서 스파이 짓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니?”

“우린 그저 눈 것뿐이에요.” 내가 대답한다. 내 목소리는 죄 지은 것처럼 들린다.

“뭘 한 거니?”

“우린 풀을 따라 기어갔어요. 스파이처럼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저드 아저씨가 밤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했어요.”

“데이비드는 저드가 밤에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니?”

나는 두 엄지손톱을 문지르면서 내 손을 내려다보고 있다. 바보같이 당황스러웠다. 나는 어깨를 으쓱거린다. “저드 아저씨가 늑대인간으로 변하는지 보려고요.”

아빠가 반쯤 돌아앉아 나를 응시하자 그네가 약간 흔들린다.

“저드 아저씨는 산탄총을 들고 계단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아저씨가 다람쥐를 쏘는 것을 봤어요.” 내가 계속해서 말한다. “또 다른 다람쥐를 쏘려고 할 때, 제가 ‘안돼요, 쏘지 마세요!’하고 소리쳤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제 머리를 아래로 눌러서 그대로 숨어 있었어요. 아저씨가 풀 속에서 저희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저씨는 너무 취해 있었어요.”

아빠에게서 길고 긴 한숨이 흘러나왔고, 너무 길어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말 그대로 피곤해 보인다. 완전히 지쳐 보인다.

“네가 만약 노력했다면,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빠가 말한다. “마티, 저드의 우편함이나 트럭 굵힌 것과 ‘관련’이 있는 거니?”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하지만 네가 진실을 말한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네가 아니라고 말해서?” 희미한 빛 속에서 아빠가 나를 쳐다본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샤일로를 처음 데려왔을 때 아빠에게 비밀로 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아빠가 물었을 때 우리 숲에서 저드 아저씨의 개를 봤지만,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내가 샤일

로를 그곳에 ‘두었다는 것’을 절대 털어놓지 않았다.

“넌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어. 너도 알잖니.”

“알아요. 그땐 거짓말 했지만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지금 네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을 내려야 한단다.” 아빠가 말한다.

우리 둘 중 누구도 그네를 밀지 않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 문 가까이에 서 있는 다라 린의 그림자가 문 바로 안쪽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술 취했을 때는 기억조차 못하는, 그리고 아직 사냥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냥철을 기다리는 사람뿐이구나. 내가 허락할 때까지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할 수 있는 한 저드 트래버스를 멀리 하거라. 네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이미 내 손에 많은 문제가 쥐여져 있단다. 알겠니?”

“네.” 내가 아빠에게 대답한다.

아빠가 그네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간다.

“아빠?” 내가 아빠를 부른다.

아빠가 멈춘다.

“아저씨의 트럭이나 우편함에 함부로 손대지 않았어요. 아빠가 믿을 수 있게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제를 일으키지 말거라.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란다.” 아빠가 말한다.

여덟

일요일에 우리는 들떠 있었다. 샤일로로는 빙글빙글 돌며 네 번이나 나를 먼 목초지로 유혹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안돼, 샤일로!”하고 말한다. 샤일로는 혼란스러워한다. 우리는 모두 그날 오후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성을 들었다. 우리 숲에서 난 소리는 아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목초지에 올라가고 싶어 못 견뎌하는 다라 린도 뱀만큼이나 무서워했다. 지난 여름, 아이스크림 선데이조차도 다라 린을 목초지로 이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의 공기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준다. 곧 바람은 차가워질 것이고 목초지로 올라가는 길이 열게 될 것이다.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이렇게 뛰어 다니는 것이다.

일요일 저녁을 먹고 난 후에, 하늘은 여전히 밝았다. 베키는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고, 다라 린은 자기와 숨바꼭질을 하자고 나를 조른다. 나는 무기력하게 자루로 만든 그네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리면서 신발의 발가락 부분이 바닥에 끌리도록 하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안에서 텔레비전으로 웨스트버지니아의 차기 주지사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누가 숨바꼭질 할거야?” 내가 묻는다. “네가 숨고, 그 다음엔 내가 숨고, 또 그 다음엔 너… 그게 뭐가 재미있어?”

“베키가 할 수 있어.” 다라 린이 말한다.

“맞아!” 베키가 소리친다. “나도 끼워줘, 마티 오빠! 그리고 샤일로도 할 수 있어!”

샤일로가 자신의 이름을 듣자 걸어와 뭔지도 모르는 것을 하려고 준비한다. 왜 나는 아홉 명의 남자 형제가 있는 가족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한다.

야구 팀! 아홉 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엄마는 할 일이 부족하거나 같이 할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내가 앞을 바라봤을 때 다라 린과 베키, 그리고 샤일로가 한 줄로 서서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알겠어.” 내가 말한다. “내가 ‘술래’할게. 너희 둘 가서 숨어.”

나는 천천히 돌고 있는 그녀의 줄에 이마를 기대는다. “오… 십… 십오… 이십…” 내가 숫자를 센다.

“‘숨어’, 베키!” 다라 린이 소리 지르는 것이 들린다.

백까지 셉지만 베키는 여전히 현관 근처에서 뛰어다니고 있다. 나는 이백까지 센다.

“이제 간다. 준비됐지!” 내가 소리 치고 눈을 뜬다.

베키는 현관의 의자에 베개를 들고 앉아있는데 발이 툭 튀어 나와있다. 나는 미소를 짓고는 베키를 못 본 척한다. 대신에 다라 린을 쫓는다.

나는 담장 뒤쪽, 오두막을 둘러보지만 지금껏 다라 린은 아빠의 지프 타이어 뒤에 숨어있었다. 내가 자루로 만든 그네에서 꽤 멀리 떨어지자 다라 린이 가는 다리로 날아가듯이 달려온다. 다라 린이 달릴 수 있다!

“살았다!” 다라 린이 소리 치며 그녀를 한 손으로 친다. 베키가 현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나오고, 나는 베키를 그네까지 쫓아가며 잡으려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 베키의 작은 손이 그녀를 칠 수 있도록 놔둔다.

“야호!” 베키가 큰소리로 말한다.

“좋아, 내가 또 ‘술래’네.” 내가 말하고는 눈을 감고 다리 한쪽을 그네에 걸치고 빙글빙글 돌린다. “오…십…십오…”

결눈질로 베키가 멀리 목초지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인다. “그쪽으로는 가지 마, 베키!” 내가 외친다.

베키가 멈추고 돌아본다. 나는 얼굴을 다시 파묻고 계속해서 숫자를 센다.

엄마는 늘 다라 린에게 맨발로 다니지 말라고 늘 말했지만, 그때 다라 린이 발가락을 찡고는 다리가 부러진 듯이 울부짖는다.

베키는 이제 길 위에 앉아 있고, 나는 다시 그네에서 일어나 다라 린이 죽을지 살지 보러 간다.

엄마가 나무라는 표정으로 문가로 나오신다.

“우리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잖니!” 엄마가 말한다. 내가 다라 린을 돌보겠다고 말하자 엄마는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간다.

나는 나무 그루터기에 다라 린을 앉히고 발가락을 유심히 살펴본다. 발 끝부분이 축 처지고 한쪽으로 굽은 것으로 보아서 탈골이 된 것 같았다. 내 기억에 나도 한두 번 탈골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다라 린도 발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크게 울어댄다.

“다라 린, 입 좀 다물어.” 내가 말한다. “일 분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고쳐줄게.”

다라 린이 울음을 멈추었지만 입을 벌리고는 다시 소리 지를 준비를 한다.

“2초 동안만 아프고, 그 다음엔 괜찮아 질 거야.” 내가 말한다.

이제 다라 린은 발을 붙잡고 고개를 흔들며 울고 있다.

“네가 선택해.” 내가 말한다. “네 발가락을 제자리에 맞추도록 해주거나—그러면 잠시 동안만 아플거야—머피 선생님께 가거나. 어떻게 하고 싶어?”

다라 린이 심각하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눈을 감고,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뒤로 젖힌다. “고쳐줘.” 다라 린이 말한다.

나는 다라 린의 발을 잡고 구부러진 발가락을 조심스럽게 잡아 살짝 당긴다.

다라 린이 짹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발을 빼내지만, 발을 다시 내려다봤을 때 발가락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 어쨌든 나는 수의사 조수가 아니라 수의사가 되는 것을 ‘생각해봐야겠다.’

“좋아.” 다라 린이 훌쩍거린다. “이번엔 삼백까지 세야 해. 왜냐면 난 아주 천천히 뛰어야 하고, 숨기 아주 좋은 장소를 발견했거든.”

나는 다시 그네에 앉아 삼백까지 센다. “오...십...십오...이십...”

여동생들을 찾아 나섰을 때 다라 린은 숨기 좋은 장소라고 말했던 아빠의 지프 안에 있었는데, 급하게 나오기 힘든 곳이어서 나는 그네로 달려가는 다라 린의 등을 친다.

그런 다음 베키를 찾아 나선다. 덩불 뒤, 계단 밑, 그리고 현관 위를 찾아본다.

“못 찾겠다, 피꼬리!” 내가 잠시 후에 소리친다. “베키 넌 살았어. 돌아와.”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베키?” 내가 부른다.

다라 린도 함께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베키는 사라졌다.

아 흠

베키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내 다리가 멈추게 되는 먼 목초지로 가는 길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베키!” 내가 다시 외친다.

아빠가 방충망 쪽으로 나온다. “무슨 일이니, 마티?”

“베키가 없어졌어요.” 내가 말한다. “같이 숨바꼭질을 했는데, 베키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현관으로 나온다. 엄마도 뒤따라 나온다.

“뭐라고?” 엄마가 묻는다. 엄마의 얼굴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내가 다시 말한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니?” 엄마가 계단을 서둘러 내려오면서 묻는다.

“저 길 위예요.” 내가 숲과 먼 목초지로 이어지는 가파른 비포장도로를 가리킨다. “제가 그 길로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다라 린이 발가락을 다쳤는데 그 후에 베키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그 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하늘은 낮과 밤 중간처럼 보였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중간. 어둠에 눈이 익숙해졌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샤일로는 어디 있니?” 엄마가 어깨 너머로 묻는다. “베키가 쏘다니는데 어째서 샤일로는 함께 가지 않은 거야?”

샤일로는 집과 오두막 사이의 땅에 몸을 쭉 뻗고 누워 놀고 있다.

“왜 베키와 ‘함께’ 있지 않은 거야?” 엄마가 다시 소리치면서 나를 무섭게 하는 화난 눈초리로 샤일로를 쏘아본다. “베키를 보호할 수 없다면 저 개가 무슨 소용이야?”

“엄마…!” 내가 말한다.

그러자 엄마가 나를 향해 돌아선다. “네가 베키를 ‘지켜’봤어야지!”

“가서 손전등 가져와라, 아들이야.” 아빠가 말한다. “다라 린, 너는 베키가 올 수도 있으니 집에 들어가 있거라. 돌아오면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해.”

나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냉장고 위에 있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밖으로 뛰어 나온다. 샤일로로는 신나는 일이 생긴 줄 알고 일어나 함께 갈 준비를 한다.

내 갈비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덜컹거림과 공허함을 느껴졌다. 개에게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베키가 어디를 갈지, 어디를 가지 않을지 샤일로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샤일로로는 우리와 고작 한 달 정도 함께 지냈다.

“베키?” 엄마가 양쪽 덤불에 대고 외치고, 나는 엄마를 따라 언덕을 올라간다.

“베키!” 아빠가 소리친다. “어디 있니?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소리쳐 보렴.”

멀리서 총소리가 또 들린다. 적어도 나는 총소리라고 생각을 했다. 어쩌면 폭죽일 수도 있다. 가끔씩은 그 소리를 구별하기 어렵다. 나는 아빠를 쳐다봤고 아빠도 그 소리를 들었다. 총이다. 아빠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길의 갈림길에 다다랐다. 왼쪽으로 가면 내가 울타리를 만들고 샤일로를 숨겼었던 숲으로 가게 된다.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가끔씩 샤일로와 함께 뛰어노는 목초지로 가게 되는데 밑에서는 그곳이 보이지 않는다.

“마티, 너는 여기 앉아서 마당에서 눈을 떼지 마라. 베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빠가 말한다.

“아, 알겠어요.” 내가 대답하고는 손전등을 아빠에게 건네준다. 아빠는 숲으로 향하고, 엄마는 목초지로 가는 길로 출발한다. 그리고 나는 데이비드와 가끔 우주선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갈림길에 있는 크고 납작한 돌 위에 앉는다.

나는 파문힐 정도로 푹 앉지 않는다. 갑자기 진심으로 무릎에 힘이 빠질 정도로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저드 트레이버스 아저씨가 등불 하나 들고 사슴을 사냥하러 여기 올라왔으면 어찌지? 강력한 빛으로 사슴을 어리둥절하게 해서 앞에만 서있으면 그때 소총으로 쏘는 것, 어떤 사냥꾼들은 그런 식으로 가장 저렴하게 사슴 사냥을 한다.

하지만 그건 가장 끔찍한 생각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었다. 저드 아

저씨가 수렵 금지기간에 암사슴을 죽였을 때 내가 아저씨를 수렵 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신고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면 어찌지? 내가 만약 그를 신고했었다면 수렵 감시인이 그의 면허증을 빼앗아 갔을 텐데. 하지만 내가 샤일로로 정말로 원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베키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유탄들 중 하나가 베키를 발견하고, 나는 베키와 샤일로를 맞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위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몸을 굽혀 배를 끌어안는다. 너무 무서워서 팔이 떨린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마당 아래쪽에는 샤일로가 일어나 둘러보는 것이 보인다. 나는 샤일로가 너무나 오고 싶어했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 이쪽으로 올라올 줄 알았다. 하루에 네 번이나 개를 혼내게 되면 그 개도 뭔가 조금은 알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샤일로는 베키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어쩌서 샤일로는 가장 어린 베키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한 것일까?

“베키! 베키!” 엄마의 외침이 들린다.

하지만 대답이 없다.

이제 곧 어두워질 것이다. 벌써 숲 뒤편은 어두워 졌다. 가끔씩 아빠의 손전등에서 나오는 노란 빛이 비쳤다가 다시 사라진다.

십 분이 지났다. 내가 생각하는 더 심각한 상황은 나는 여기 앉아 베키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저드 아저씨가 “거기 누구야?”하고 소리치며 총을 들고 우리를 찾을 때 풀 속에서 데이비드 하워드 옆에 누워있는 것이다.

나는 차라리 그곳에 돌아가 저드 아저씨네 집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택할 것이다.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든, 내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앉아 있는 것뿐이다.

아빠가 숲 속에서 다시 돌아오고 멀지 않은 곳에서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보안관에 전화해서 수색대를 요청해야겠다.” 아빠가 말한다. 아빠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가 울기 시작한다.

가파른 길을 내려가면서 아빠가 큰 소리로 말한다. 내 생각엔 기도인 것 같다. 아빠의 말은 점점 더 기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저드를 짜증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상황을 잘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빠처럼 서른여덟 살이 되면 이러한 의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안다.’ 나는 이제 다른 면을 보게 된다.

“레이.” 엄마는 코가 짝 막힌 채 흐느낀다. “저드가 숲으로 와 베키를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니오. 숲에 취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아빠가 엄마를 진정시키려 엄마에게 팔을 두르지만 아빠의 목소리에서 아빠도 진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샤일로는 길 끝자락에서 서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꼬리를 흔들며 혀를 길게 뺀 채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아빠는 샤일로를 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볼 땐 아빠가 오른발을 뺀어 샤일로를 미는 것처럼 보였다. 정확히 샤일로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절할 것도 아니다.

다라 린은 밤에 자기 혼자 집에 두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방충망 앞에 서서 시끄럽게 울어댄다. 아빠는 현관에 올라서자마자 곧장 전화기로 향한다. 엄마는 다라 린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나는 현관에 올라서서 저녁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샤일로가 안으로 따라 들어오도록 기다린다. 하지만 샤일로는 계단 아래로 종종거리며 내려가 오두막으로 가서 꼬리를 흔든다.

갑자기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나는 계단을 신경 쓰지도 않고 현관에서 뛰어 내려와 공구 창고의 문을 좀 더 넓게 연다.

그곳에 베키가 닭 모이 주머니에 머리를 대고 썹썹거리는 소리를 내며 흙으로 된 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 자고 있다.

나는 정말 기뻐 소리 지른다. 그리고는 샤일로를 안고 미시시피에서 가장 진한 키스를 한다. 나는 다시 한 번 소리 지른다. 하지만 베키는 그 소리에도 깨지 않

는다. 베키의 몸이 잠시 꿈틀거리더니 곧바로 다시 잠에 빠져 든다.

이제 엄마가 집 밖으로 나와 다라 린과 아빠도 그 뒤를 이어 나온다.

“찾았어요!” 내가 외친다. “샤일로가 베키를 쪽 돌보고 있었어요. 제가 오두막으로 오도록 이끌었어요.”

모두가 달려 나오고, 누가 누구를 껴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엄마가 베키를, 아빠가 엄마를, 다라 린이 샤일로를 끌어안았지만 나는 다라 린과는 안지 않았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다. 아마 나는 샤일로를 안았던 것 같다.

아빠가 베키를 팔로 안아 올려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만 베키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는다. 베키는 뇌수술을 한다고 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엄마가 베키의 신발과 옷가지를 벗기고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는 일만 남았다. 아빠는 보안관에 다시 연락해 수색을 취소하고, 엄마는 피지 리플을 가득 담아준다. 샤일로가 첫 번째 접시를 받는다.

“샤일로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우리를 슬픔과 걱정에서 구해 주었을 텐데.” 아빠가 말한다. 이제 아빠가 미소를 짓는다.

“샤일로는 말했지만 우리가 알맞은 질문을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내가 말한다. “샤일로는 계속해서 베키가 오두막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키는 숨으러 거기 들어갔다 잠든 게 분명해요. 샤일로가 소란 피우지 않고 베키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베키를 놔두고 집으로 들어가자 우리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음 주까지 저드를 보지 못하면 그쪽으로 가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봐야겠어.” 아빠가 말한다. “총이나 폭죽소리가 날 때마다 이렇게 불안해 할 수는 없어.”

그날 밤은 폭 잘 수 있었다.

영

타일러 카운티에서 광견병이 발생했다고 타일러 스타 뉴스에서 보도되자 아빠는 샤일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예방접종을 다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저드 아저씨가 꼭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의 개들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는 개들이 모두 쇠사슬로 묶여있는데 어떻게 광견병에 걸리겠냐고 말할 것이다.

저드 아저씨는 쓸 필요가 없는 돈은 쓰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든 할 텐데, 엄마는 아저씨가 맥주 사는데 쓰는 돈을 개들에게 쓴다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개들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행복과 건강은 저드 아저씨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사냥뿐이다.

머피 선생님이 세인트 메리즈에 사는 수의사 친구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우리는 화요일 늦은 오후에 동물병원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 아빠는 제 시간에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했다. 다라 린과 내가 집에 와 음료와 치즈크래커를 먹고 난 후 네 시쯤 아빠와 다라 린과 나는 샤일로를 지프에 태우고 동물병원으로 갔다.

수의사 선생님의 이름은 존 콜린스이고, 머피 선생님처럼 집의 일부를 진료실로 사용한다. 동물병원에 가는 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은 것은 샤일로 뿐이다. 하지만 샤일로는 지프에 올라타는 것을 좋아하고, 아빠와 함께 앞자리 앉아 머리를 창 밖으로 내놓고 귀를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좋아한다. 다라 린과 나는 샤일로의 혀 끝에서 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트린다. 지프가 더 빠르게 달리고, 바람이 불어와 샤일로의 침을 바로 뒷 자석에 떨어트린다. 침이 다라 린의 팔에 떨어지자 다라 린은 비명을 지른다.

병원에 도착하자 샤일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된다. 어떻게 개들이 알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가 이전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곳이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개들의 냄새다. 개들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샤일로로에 목줄을 매고 인도를 걸어갔는데, 샤일로로는 나무 냄새를 맡으면 맡을수록 더 무서워한다. 우리가 문에 다다랐을 땐 꼬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는 걸지도 못할 상태가 되었다. 다라 린이 샤일로를 안아 들고 안쪽으로 데려간다.

아빠가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파란색 셔츠를 입은 젊은 간호사가 샤일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샤일로의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샤일로는 이곳이 오고 싶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샤일로는 우리가 지나갈 때 15파운드의 고양이가 자기를 찰싹 때리자 확실히 알게 된다.

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일렬로 앉고, 샤일로는 내 다리 사이의 바닥에 앉는다. 나는 종아리에 힘을 주어 샤일로를 안아주지만, 샤일로는 여전히 떨고 있다. 나는 손을 뻗어 샤일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샤일로가 내 손을 핥지만 강하지는 않았다. 샤일로가 “너는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날 여기로 데려올 수가 있어?”하고 말하는 것 같다.

아빠는 디스토퍼와 광견병, 그리고 간염이라는 질병에 관한 소책자를 읽고 있다. 나는 벽에 걸린 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다. 차트에는 개의 옆면과 한 번도 들여보지 못했던 개의 각 부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가 수의사가 되려면 그것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외우기 시작했다. 비절, 허리 살, 엉덩이, 기갑, 가슴살, 뒷무릎 관절, 윗입술... 모두 적을 수 있게 공책을 가져올 걸 그랬다.

다라 린은 기생충에 관한 글을 읽고 있다. 다라 린이 입을 짝 벌리고 앉아 25센트 동전만큼 눈을 크게 뜨고는 내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찌른다.

“마티 오빠, 강아지들 몸 속에 벌레가 있다는 거 알아?” 다라 린이 속삭인다.

“그래. 개들은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대답한다.

“‘살아있는’ 벌레 말이야!” 이제 다라 린이 눈은 50센트만큼 커졌다. “몸 ‘속에서’ 기어 다닌대!” 다라 린은 매 순간 겁에 질린 표정이다. 그러더니 나를 쳐다

본다. “어쩌면 샬로로도 있을지 몰라.”

“있을 수도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다라 린이 묻는다.

나는 몸을 구부려 속삭인다. “똥을 살펴 봐야해.”

“으으!” 다라 린이 소리치다가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내가 다라 린을 놀리는 것보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일은 다라 린을 역겹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샬로를 진찰실로 데리고 들어갈 차례다. 내가 일어나서 목줄을 끌어당기자 샬로는 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슬픈 모습으로 따라온다.

수의사 선생님은 약 6피트 4인치 정도로 키가 컸고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크고, 귀도 크고, 환한 미소를 가졌다.

“어디 보자. 네가 샬로구나!” 그가 아빠처럼 친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를 들어 올려 진찰 탁자에 올려놓는다. “이 개가 머피 선생이 말한 개인가요?”

“네. 맞아요.” 아빠가 대답한다.

첫 5분 동안 존 콜린스 선생님은 샬로를 쓰다듬어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샬로의 귀 뒤와 머리를 쓰다듬자 곧 샬로는 이게 아주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샬로가 살짝 뛰며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존 콜린스 선생님의 손과 턱을 훔쳤고 선생님도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 샬로가 주사를 얼마나 맞았는지 물어봤지만 우리는 샬로가 쳐드 아저씨 전에 누가 주인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샬로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궁금해 했는데 선생님은 밥찌꺼기를 먹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확실했다.

“아주 잘 돌봐 주셨군요. 하지만 밥에 단백질이 더 주면 더욱 건강해질 겁니다.” 존 콜린스 선생님이 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개밥을 사야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말해주었다.

그는 샬로에게 주사를 몇 대 놓아주고는—샬로는 약간 움찔했지만 꽤 잘 참았다—절대 뼈를 주지 말 것, 항상 깨끗한 물을 줄 것, 매일 밥그릇을 씻어줄 것을 알려주었고, 벼룩이 생겼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주었다.

아빠와 다라 린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샬로를 데리고 나갔을 때, 나는 존 콜

린스 선생님에게 묻는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개들을 묶어놓으면 사나워지는 거죠?”

“묶어놓으면 개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사나운 것처럼 행동하는 거란다.” 선생님이 말한다. “개를 묶어놓으면 가두어 놓은 것처럼 느낀단다. 그래서 다른 개나 사람이 가까이 오면 개들은 공격당한다고 느껴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자신이 크고 무서운 존재인 척하는 거지.”

“그러면 그 개들을 평생 동안 사나울까요?” 내가 묻는다.

존 콜린스 선생님은 고개를 흔든다. “그렇지는 않지. 개를 풀어주면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단다.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면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당시에는 진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믿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게 되면 점차 충성스럽고 온순한 개가 될 거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과제를 써 내려갔다. 이제 수의사가 생겼고, 그에게 전화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내 이름을 문에 걸고 동물 병원을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온갖 문제가 있는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올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지 알 것이다. 하지만 이틀 뒤,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때 난 무엇을 해야 할 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수요일 방과 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상상과 미래’ 프로젝트의 과제를 제출했다.

사라 피터스가 일어나 어떻게 수영선수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국해협을 수영해 건널 것인지 발표했다. 텔벗 선생님은 아주 흥미로운 목표라면서 여생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물었다. 사라는 챔피언이 되고 나서 수영이 아닌 다른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사라가 자신의 과제를 제출하고, 프레드 닐스가 자신이 쓴 과제를 발표했다. 프레드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하는데, 경찰이 되지 않으면 구조대가 될 것이다.

텔벗 선생님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돕고 보호하려는 바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모든 남학생들은 사라에게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음으로 로라 헤르텐이 일어나 자기는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다. 만약 그녀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면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요리사가 되지 못하면 웨이트리스가 되겠다고 했다. 그리고 웨이트리스마저 되지 못

하면 설거지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맵소사, 로라는 확실히 선생님을 기쁘게 할 줄 안다. 텔벗 선생님은 로라가 기꺼이 작은 일부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밟아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것에 좋아한다.

데이비드 하워드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고는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날 오후 다섯 시 쯤, 그 일이 벌어졌다.

아빠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엄마는 부엌에서 순무와 양파 요리를 하면서 뉴스를 듣고 있다.

다라 린은 닭장과 오두막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줄을 걸어놓고 케이블카처럼 작은 시리얼 박스를 매달고 앞뒤로 움직인다. 진짜 좀 멋지게. 내가 그걸 생각해 냈으면 좋았을 텐데.

베키는 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지루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티를 내지 않는 샤일로와 풀밭에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다. 베키가 샤일로의 등을 이쪽으로 굴렸다가 또 다른 쪽으로 굴린다. 매번 샤이로는 뭐랄까, 발로 흙을 파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나는 엄마가 사과 소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두 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넉넉히 따려고 한다. 이제 복숭아는 모두 떨어졌지만 엄마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사과까지 찾길 원한다.

내가 사과 여섯 개를 찾았을 때 개 짖는 소리와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나는 소리 같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샤일로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고는 일어서서 몸을 긴장 시켰고, 베키는 풀밭에 몸을 굴리고 있었다.

“누구야? 네 친구니?” 나는 검은색 래브라도를 생각하며 샤일로에게 묻는다.

하지만 개 한 마리라고 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컸다.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그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세 마리의 개가 집 뒤편의 나무 뒤에서 튀어나왔다. 나는 그 개들을 보자마자 저드 아저씨의 개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열하나

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한 팔로는 샤일로로, 다른 한 팔로는 베키를 안아 들고 현관으로 뛰어 올라간다.

“엄마!” 내가 외쳤고, 엄마는 벌써 방충망에 가까이 다가왔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고, 나는 그 둘을 안에 내려놓는다. 샤일로는 밖을 보고 싶어서 창문가로 달려가 앞발을 문틀에 올리고 뒷다리로 선다.

“다라 린?” 엄마가 부른다.

나는 현관에서 뒤를 돌아 몸이 굳어버린 채 닭장에 기대어 있는 다라 린을 본다. 개들은 다라 린 주위에서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했고,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저드 아저씨가 개들에게 우리를 공격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엄마가 계단을 몸으로 막으면서 빨랫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들고, 나는 현관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닭장으로 뛰어 간다.

다라 린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를 얼굴 위로 들자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점박이 개가 다라 린에게 달려들어 팔을 문다.

퍽! 엄마가 빨랫줄 기둥으로 점박이 개를 내려친다. 다른 개들이 우리를 향해 돌아보지만 내가 시속 90마일로 방망이를 휘두르고, 엄마가 다시 한 번 기둥으로 내려치자 개들이 뒤로 물러선다.

공기가 소음으로 가득찼다. 개들은 짖어대고,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다라 린은 비명을 지르고, 샤일로는 낄낄거리고, 베키는 방충망 앞에 서서 악을 쓰며 울고, 암탉들은 닭장 안에서 계속 푸드덕거린다.

점박이 개가 그 무리의 리더로 보인다. 엄마가 기둥으로 다시 내려치자 그 개가 풍지가 빠지게 마당 밖으로 도망치고, 다른 개들도 쫓아서 뛰어 나간다.

엄마가 서둘러 다라 린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물린 상처를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때쯤 아빠가 돌아왔다.

“어느 집 개들이 저렇게 뛰어가는 거야?” 아빠가 묻는다.

“저드 아저씨요!” 내가 아빠에게 말한다. “개들이 목줄이 풀린 채 여기 왔고, 그 중 하나가 다라 린을 물었어요.”

다라 린이 흐느껴 운다. “난 아무 짓도 안했어요! 나는 그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개들이 와서 날 물었어요.”

“저드의 개가 확실하니?” 아빠가 묻는다.

“어디에서라도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대답한다.

엄마가 머피 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선생님은 보안관에 연락해 그 개들을 데려가도록 하라고 했다. 다라 린을 물었던 그 개는 광견병에 걸렸는지 보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가둬 두어야 한다. 광견병에 걸렸다면, 다라 린은 주사를 맞아야 한다. 만약 그 개를 찾지 못하더라도 주사를 맞아야 한다.

다라 린이 다시 울부짖는다.

아빠가 보안관에게 전화를 하자 보안관은 그 개들이 누군가의 고양이를 죽여서 이미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보안관은 사람을 보내 그 개들을 찾고 있다고 했다.

다라 린은 이제 훌쩍이고, 베키가 합세해서 울어대고 있다. 샤일로는 창가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킁킁거리고 뒷다리로 선다. 그러는 동안 엄마의 순무 요리는 끓어서 없어지고, 냄비는 타기 시작했다.

엄마가 불을 끄고, 베키를 밖의 그네로 데려가 진정하도록 한다.

“여기에 잠시 앉아서 쉬자.” 엄마가 말한다. “베키, 물린 건 네가 아니야. 그러니 그만 울으렴. 그리고 다라 린, 넌 곧 죽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 엄마 옆에 와 앉아 있어. 오 분만 평화롭고 조용하게 있자. 그러지 않으면 엄마 머리가 날아가 버릴 것 같구나.”

베키가 엄마의 머리를 올려다보더니 엄지손가락을 빨기 시작한다.

샤일로가 마당을 돌아다니며 그 개들의 흔적을 맡을 때 아빠와 나는 현관에 나와 계단에 앉는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개의 코는 아주 많이 알 수 있

는 모양이다.

“세상에 어떻게 그 개들이 풀렸는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말한다. “저드는 성인 남자가 붙잡고 있어야 될 만한 체인을 걸어 두었었는데 말이다. 마티, 그 개들이 체인을 끌고 다니고 있었니? 나는 보지 못한 것 같구나.”

“아뇨. 모두 목걸이가 풀린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대답한다.

충분히 진정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저드 아저씨의 픽업트럭이 우리 진입로로 들어온다.

“자, 누가 오는지 봐라.” 아빠가 말한다.

샤일로는 너무 가만히 있어서 마치 돌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샤일로는 자신의 이름보다도 저 픽업트럭의 소리를 더 잘 안다. 트럭이 아빠의 지프 옆에 서고, 저드 아저씨가 발 한 짝을 내려놓자마자 샤일로는 우리 집 계단으로 쏜살같이 달려와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내가 그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저드 트레이버스 아저씨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곳을 찾아 가듯이.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마당을 쿵쿵거리며 가로질러 오는 저드 아저씨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벼락을 칠 것 같이 몹시 화가 나 있다. 베키에게 크레용을 주고 그의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아마 보라색을 고를 것이다.

“레이 프레스턴, 내 개들을 풀어 놓았다고 당신을 고발할거요.” 저드 아저씨가 세 배나 더 큰 목소리로 말한다.

“진정해요, 저드. 난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해.” 아빠가 그에게 말한다.

“그럼 당신 아들을 보냈겠지.”

“마티는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소.”

“글쎄, 누군가 찾아와 세 마리 개들을 모두 풀어 놓았고, 이웃이 내 개들이 당신 땅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던데.”

엄마가 크게 이야기한다. “그 개들이 여기 왔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내 딸을 물었어요. 보여주렴, 다라 린!”

다라 린이 팔을 들어 올리고 크게 흘쩍인다.

“마티가 베키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안 봐도 뻔해요.” 엄마가 계속해서 말한다.

하지만 저드 아저씨는 믿지 않는다.

“그건 조작된 거짓말이야. 전에도 들어본 적 있어. 보안관이 내 개들을 찾아서 한 마리는 우리에게 2주 동안 가둬 두어야 한다더군. 그 개는 두 번째로 좋은 사냥 개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만 그 개가 광견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 아빠가 말한다. “사람을 무는 개는 어떤 개라도 잘 살펴봐야 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어. 내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저드 아저씨는 어떤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말한다. “당신이 내 최고의 사냥개를 데려갔고, 이제는 두 번째로 좋은 사냥개에 대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군. 나는 이 일로 사냥철을 2주나 놓치게 될 거요. 그러니 저 비글을 나에게 빌려주시오. 내가 쓸 수 있도록.”

내 심장이 가슴 속에서 거의 터질 것 같았다.

“안돼요!” 내가 말한다.

“저드.” 아빠가 말한다. “여기 앉지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열 올리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합시다.”

“앉지 않을 거요. 그리고 저 개를 빗진 것 말고는 나는 할 말 없소.”

베키가 그네에서 미끄러져 내려온다. “샤일로를 데려갈 수 없어요!” 베키가 목을 내밀고, 얼굴을 찌푸린 채 말한다. 베키가 키가 크고 나이든 카우보이 부츠를 신은 저드 아저씨에게 말대꾸를 하지만 나는 베키가 한손으로 엄마의 치마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셋, 베키.” 엄마가 베키에게 말한다.

“저드 아저씨.” 내가 최선을 다해 그를 설득하며 말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샤일로가 가지 않을 거예요.”

“갈 거야, 자.” 아저씨가 말한다. “어디 있지?” 그리고 휘파람을 분다.

샤일로가 계단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샤일로가 숨은 쉬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봤죠?” 다라 린이 재잘거린다. “저기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을 가리킨다. 나는 다라 린을 물에 잠기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드 아저씨가 계단 옆으로 가서 손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그의 숨결에서 맥

주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가 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술을 마셨을 것이다.

“여기 있었구나!” 저드 아저씨가 외치고, 다시 휘파람을 분다. “이리 나와라! 어서!”

나는 샤일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도록 내가 내버려 둔다고 생각할까?

가만히 있어, 샤일로. 내가 속삭인다. 하지만 나는 저드 아저씨네 집 근처 풀속에서 샤일로를 처음 발견한 날, 샤일로가 배를 깔고 기어서 따라오는 것을 기억한다. 샤일로가 나에게 온 것은 휘파람 때문이었다. 만약 저드 아저씨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 샤일로가 나오면 어찌지? 나는 그저 여기 앉아서 열흘 동안 우리 개를 저드 아저씨에게 내어줄 것인가? 아빠가 그렇게 하도록 할까?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기쁘다. 샤일로는 계단 아래 구석에서 할 수 있는 한 멀리 가서 몸을 작게 말았을 것이다.

저드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일어나 빨랫줄 기둥을 가지러 간다. 기둥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 개를 찌를 준비를 한다.

“안돼요!” 이번에는 내가 일어나면서 다시 말한다. “그 기둥으로 우리 개를 얻지 못할 거예요.”

“저드, 이제 그거 내려놓으시오.” 일어서면서 말하는 아빠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그 개는 이제 마티의 개이고, 당신은 개를 데려갈 수 없소. 나도 당신이 개들이 풀려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요.”

그리고 엄마가 말한다. “우리 딸이 팔을 물렸지만, 고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린 서로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저드 아저씨가 기둥을 들고 15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 그가 아빠를 응시한다. 그리고는 나를. 엄마와 여동생들도 차례로 쳐다본다.

갑자기 그가 빨랫줄 기둥을 땅에 던진다.

“끝난 게 아니오, 레이 프레스턴.” 그가 말한다. “나는 이 일의 배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아. 거기에 내 주급을 걸지. 이게 마지막이 아니오. 마

지막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 당신은 후회할거요.”

그가 마당을 다시 가로질러 픽업트럭을 타고, 굉음과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우리 풀밭을 돌아 진입로로 빠져 나갔다. 자갈길의 흙먼지가 왼쪽으로 굴러간다.

샤일로가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는 살금살금 기어 나와 계단 위로 올라온다. 샤일로가 내게로 와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나는 샤일로를 팔로 감싼다.

어느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저드 아저씨가 길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가 방향을 틀 때까지 뿌연 먼지를 쳐다보고 있다.

열 돌

다음 날 통학버스에서 모두들 저드 아저씨의 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물론 다라 린은 통도를 돌아다니며 저드 아저씨의 점박이 개가 물었던 곳을 보여주었다. 다라 린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하니 그 개가 팔을 물었고, 엄마가 빨랫줄 기둥으로 그 개를 치기 전에 거의 비틀었다고 한다.

그 점박이 개를 잡은 사람은 마이클 솔트의 아버지였다. 그 후에 다른 두 개들은 황급히 흩어졌지만 곧 붙잡혔다. 마이클의 아빠는, 만약 누군가가 그 개들을 풀어놓지 않았다면, 저드 아저씨가 두 번이나 마이클네 우편함을 들이받은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개들을 풀어 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마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에게 화가 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죽은 고양이에 대해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 고양이는 저드 아저씨의 집 근처에 사는 도날슨 아주머니의 고양이였다. 사라가 듣기로는 개들이 그 고양이를 발견하고 목을 부러뜨렸을 때, 고양이는 계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도날슨 아주머니가 고양이를 나머지 도날슨 가족이 묻힌 사설 묘지에 묻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묘지 중 몇 개나 고양이 묘였는지는 모른다.

프레드 닐스는, 벤스 린에서 저드 아저씨와 주먹다짐을 한 사람이 저드 아저씨가 일하는 동안 아저씨의 집에 가서 개들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지만 나는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데이비드 하워드의 상상은 계속되고 절대 멈추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버스에 올라 도날슨 아주머니의 고양이와 다라 린의 팔, 그리고 벤스 린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한다. “만약 그 개들이 고양이를 낚아챘다면, 아

기도 낚아챌 수도 있어.”

“어떤 아기?” 내가 묻는다.

데이비드가 어깨를 으쓱한다. “어떤 아기도! 내 말은 그 개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누군가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놨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아기가 사라졌으면 어떻게 해? 난 어떤 아기가 사라졌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분명 저드 아저씨의 개들이 데리고 간 거라고 생각해.”

버스가 학교 진입로로 들어섰을 땐 버스에서는 고양이가 사라졌고, 아기가 사라졌고,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여자 아이들과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를 찾는 벤스 런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저드 아저씨의 개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 개들이 그렇게 무리지어 뛰어 다니다가 피 맛을 보고난 후에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나는 가능하면 그 부분을 내 과제에 넣고 싶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존 콜린스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그의 보조원은 선생님이 뱀에 물린 개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려면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그렇게 사나운 개들이 바뀔 수 있는지 질문한다. 그리고 수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건 어렵다.” 수의사 선생님이 말한다. “하지만 그런 일을 본 적은 있지. 수의사가 할 일은 일단 개들을 격리시켜놓고, 한 번에 하나씩 봐주는 거야. 가끔 개가 정말 사나워서 도망칠 때, 그 개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먹이를 놔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먹이를 바로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곧 배가 고파질 거다.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하면 너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너를 알게 되겠지. 너를 믿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 개는 자기를 쓰다듬게 해 줄 거야.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단다.”

나는 존 콜린스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모든 것을 과제에 기록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여전히 저드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텔벗 선생님은 사실과 소문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은 것이라고 선생님은 말했다. 그리고 소문은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일수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소문은 어떤 부분은 빼고, 맛을 더하기 위해서 추가로 덧붙여 놓은

‘반쪽짜리’ 사실일 수도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다가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소문은 더 흥미롭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하워드와 나는 실제로 삼림 관리인과 수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과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자 텔벗 선생님이 말한다. “마티, 잠깐 볼 수 있을까?”

‘네’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아이들이 모두 발야구를 하러 나간 후에 나는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는 면담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나는 앉아서 선생님 앞에 여기저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내 과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선생님은 화가 나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이 말한다. “마티, 나도 너와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났단다. 여름날처럼 말이 느리며 조용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랐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단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철자도 그렇게 쓴다면 사람들이 네가 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모든 단어들을 보여주신다. “안다”이라고 쓴 것은 “않다”이라고 써야하고, “암것도”는 “아무것도”, 그리고 “안된다”는 “안 돼”나 “안 된다”가 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집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 선생님이 말한다. “그건 사적인 대화, 가족 간의 대화니까. 내가 미시시피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서 가족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앉아 있으면 내 혀도 쉬운 방법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지.”

선생님이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나도 미소를 짓는다.

텔벗 선생님이 말한다. “문제는 집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학교에서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야. 대학을 가고 수의사가 되고 싶다면 정확하게 말하고 쓰고, 맞춤법도 정확해야 하지.”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남으라고 했을 때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킨 줄 알았다. 하지만 교실을 나와 발야구를 하러 갈 때, 나는 텔벗 선생님이 내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슨 일이야, 마티. 창문이라도 부순 거야?” 프레드 닐스가 큰소리로 묻는다.

“아냐, 내 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셨던 거야.” 내가 대답한다.

우리 집 문제는 아빠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나는 아빠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빠가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앉고 나서 얼마 후에 아빠의 눈이 화면이 아니라 창문 밖을 쳐다보는 것이 보인다.

“저드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일요일에 현관에서 말한다.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있다. 밖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겉옷이 필요할 정도다. 몇 주 후면 그네에는 앉지도 못할 것이다. “네 말이 맞았다, 마티.” 아빠가 계속해서 말한다. “만약 이 문제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우리가 저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다면, 이야기를 해서 잘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야. 어제 내가 그의 우편함 앞에 서있는 것을 보더니 그가 ‘우편물을 거기 놓고 가요, 레이. 그리고 썩 사라지시오.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소.’하고 외치더구나.”

“아저씨의 우편함을 누군가가 다시 세웠나요?”

“아마 저드가 했을 거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어.”

아빠의 성격을 알기에, 나는 아빠가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와의 일을 수습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안다. 아빠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지금껏 본 적 없다. 단지 문제는 저드 아저씨가 화가 났기 때문에 아빠의 일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걱정은 아빠와 아저씨가 무엇을 결정하던 간에, 해결을 ‘한다면’ 샤일로가 그 해결책의 일부가 될 거라는 것이다.

아빠가 걱정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드 아저씨를 위해 일을 할 때, 스무 시간을 채워도 아저씨가 샤일로를 주지 않을까봐 걱정하며 느꼈던 기분이 다시금 되살아난다.

아주 깔끔하고 간단한 협박이었다. 나는 저드 아저씨에게 샤일로를 주지 않으면 암사슴 사건을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샤일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내가 샤일로를 구하고 싶지 않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아빠도 마찬가지다. 다툼이 있기 전에는 이웃들이 우리 땅에서 사냥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저 앉아서 다음에 무엇이 벌어

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빠, 무슨 일이 생기던지 샤일로로 다시 보내도록 하지는 않으실 거죠?” 내가 말한다.

아빠가 끔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흔들지만, 속 시원히 아니라고 말해주었으면 기분이 좋아졌을 것이다.

이틀 밤이 지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베키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묻는다.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안 조용해!” 다라 린이 말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나한테 말해, 베키.”

“ABC송 들을래?” 베키가 묻는다.

“베키, 입에 음식 넣고 말하지 마.” 엄마가 말한다. “여기 있다. 엄마는 네가 고기에 곁들여 시금치도 좀 먹었으면 좋겠구나.”

베키가 시금치를 내려다본다. “똥 같아 보여요.” 베키가 말한다.

“베키!” 엄마가 야단친다.

다라 린이 킁킁거리자 베키가 다시 말한다.

엄마는 저녁 식사 시간의 대화가 더 악화되기 전에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빠에게 말한다. “오늘 헤티 아가씨한테 들었어요.”

“이번엔 또 뭐야?” 아빠도 여기에 약간 부응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한다. 아빠가 미소 짓는다. “어머니를 독방에라도 가둔 거야?”

“할머니가 탈출하셨어요?” 다라 린이 묻는다.

“다라 린, 할머니는 감옥에 계신 게 아니야.” 엄마가 대답한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묻는다.

“또 흠치셨대.” 엄마가 말한다.

“돈이요?” 내가 묻는다.

엄마가 아빠를 쳐다본다. “치아요. 의치.”

갑자기 우리는 참을 수 없었다.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다.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의치를 흠치는 것을 생각하니 웃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머니가 ‘흠치신 줄’ 어떻게 알았대?” 아빠가 묻는다.

“간호사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마침내 어머니의 입을 열어 봤을 때는, 어머니 것과 다른 사람의 것까지 의치 두 개가 입안에 있었대요.”

아빠는 너무 심하게 웃어서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나는 한편으로 할머니가 절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를 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때로는 슬프지만 웃긴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슬프지만 웃긴 일에는 여전히 웃음이 난다.

웃음이 도움이 된다. 나는 노래하는 엄마를 위해 아빠가 접시를 닦을 때, 그리고 엄마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 것을 아빠가 좋아하는 걸 보고는 알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때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에게 화가 나기 시작한다. 아저씨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매일 밤을 이렇게 보냈을 거다. 행복하게.

아직 샬로와 뛰어 놀기에 너무 춥지 않아서—않아서—뛰어다닐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온다. 가끔 나는 샬로의 다리를 시험해 본다. 내가 현관 계단을 내려가 샬로 옆에 선다.

“제 자리에…!” 내가 힘차게 말하면 샬로가 나를 올려다 본다. “준비…” 샬로의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땡!” 목청껏 크게 외친다.

우리는 언덕의 이리 떼처럼 진입로를 쏙살같이 달려 내려간다. 달리는 동안 내 나는 이백을 셀 때까지 머피 선생님 덕에 도착할 수 있도록 5단위로 아주 천천히 센다.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백삼십이 가장 빠른 기록이었는데 계속해서 연습하면 조만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 하긴 싫지만 다라 린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라 린은 나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그건 아마 다라 린의 다리가 가늘기 때문일 것이다.

저녁 이 시간쯤 되면 모두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는 거의 텅 비어있어서 달리기 연습하기에 좋다. 샬로는 내 앞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뛰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눈가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샬로는 태엽 장난감처럼 잘도 뛴다. 멈춰 서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머피 선생님 집에 도착했을 땐 샬로의 옆구리가 들쭉거린다.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통나무 위에 앉는다. 내 생각에 그것은 차들이 선생님의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길가에 세워둔 오래된 전신주인 것 같다. 나는 평소보다 더 땀을 흘리며 거기 앉아 있고, 샤일로로는 6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혀를 밖으로 내밀고 앉아 있다. 샤일로의 혀 끝에서 침이 똑똑 떨어진다. 집으로 돌아가면 샤일로의 물통에 물을 넉넉히 채워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샤일로가 “아직 집에 갈 시간 안됐어?”하고 문듯이 쳐다보면 나는 “금방 갈 거야, 샤일로.”하고 말한다. 먼저 옆구리의 통증을 없애고 싶다. 한 팔로 이마를 닦고 막 일어서려 할 때...

퍽!

무언가 통나무에 아주 세게 맞아 통나무가 흔들거린다. 내 밑의 통나무가 움직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소리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뒤로 넘어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샤일로가 통나무를 넘어 내 옆으로 와 몸을 작게 만든다. 나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 심장은 이미 달리기로 인해 심하게 쿵쾅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폭발할 지경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 계속 있어야 할지, 아니면 머피 선생님 집으로 기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선생님의 집에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집에 안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샤일로가 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스스로 표적이 되려 할까봐 두렵다.

그리고 엔진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 얼굴에 나뭇잎이 덮힌 채, 그곳에 누운 상태로도 나는 그 소리가 저드 트레이버스 아저씨의 픽업트럭이 길을 돌아 다리 쪽으로 향해가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럭이 사라졌을 때 나는 일어나 앉는다. 다시 통나무 쪽으로 기어가 총알이 맞은 곳을 찾아보았고, 총신처럼 둥글고 깨끗하게 들어간 작은 구멍을 찾아냈다.

나는 숨을 내뿜고 샤일로를 무릎 위로 끌어 당겼다. 내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샤일로와 내가 길을 따라 달리는 것을 저드 아저씨가 보고 다리를 건너온 게 틀림없다. 아마 트럭을 길 한쪽에 대고 내려서 소총을 들고 우리를 따라왔을 것이다.

동시에 관심을 끄는 세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첫째, 이번에

저드 아저씨는 샤일로나 나를 거의 다치게 할 뻔했다. 둘째, 그가 우리 둘 중 하나를 죽이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술에 취했건 아니건 간에 목표를 빗나갔기 때문에 그저 나를 겁주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셋째, 나는 이 일을 아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할 수 없다. 오늘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빠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이 일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빠는 저드 아저씨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는 아빠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나는 우리 집 근처에 붙어있을 것이다. 특히 밤에는, 나는 물론이고 샤일로도 큰 도로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저드 아저씨에게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할 어떠한 구실도 주고 싶지 않다.

열 셋

그러나 토요일에 머피 선생님이 정원 뒤편에 잘라 놓은 나무를 가져다 놓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선생님 집에 가야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점점 더 커져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고 저드 아저씨가 나를 향해 총을 쏜 것 때문은 아니다.

선생님과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후문 계단에 가져다 놓은 사과 주스를 마시면서 내가 말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선생님이 날 쪽 훑어보시고는 사과 주스를 길게 한 모금 마신다.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 두개쯤은 가지고 있단다.”

“제 이야기 같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말한다.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털어놔야 ‘한다고’ 느낀다. 말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구멍이 뚫리게 될 거다.

나는 침을 삼킨다. 다시 한 번 삼킨다. “저... 셰퍼드가 샤일로를 물었을 때, 샤일로가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돌봐 준 것 아시죠? 실은, 샤일로를 돌려주기로 한 일요일에 저드 트레이버스 아저씨네 집에 찾아 갔었어요. 그 개를 제가 키우고 싶다고 말하러 아침 일찍 일어나 아저씨한테 갔어요. 저는 샤일로를 데려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해야 한다면 아저씨와 싸울 수도 있었어요. 전 샤일로를 돌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열한 살짜리 아이가 200파운드나 나가는 자동차 정비공과 맞서 싸우겠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실은 나조차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저드 아저씨가 들판에서 사슴을 죽이는 것을

우연히 봤어요. 암사슴이요.”

“여름에 말이니? 그가 암사슴을 죽였다고?”

“소총으로 쏘았어요. 아저씨의 말처럼 그의 정원 근처 어디도 아니었어요.

“그건 무거운 벌금이 따르단다.” 선생님이 말한다.

“알아요. 제가 아저씨를 협박했어요.”

선생님이 사과 주스 잔을 내려놓고, 팔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나를 한참동안 쳐다본다.

“저드 아저씨는 제가 숲에서 나타나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아저씨가 쓴 것을 제가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지금은 사슴 사냥철이 아니라고 말했고, 아저씨는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 했어요. 저는 수렵 감시인에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아저씨는 제가 입을 다물기만 하면 우리 가족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흠.” 선생님이 말한다.

“저는 고기 말고 샤일로로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암사슴을 아저씨네 집까지 끌고 가는 것을 도와주고, 절대 말하지 않고, 2주 동안 아저씨의 집에서 일하기로 거래했어요. 그 이후로 그 개는 제 것이 되기로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전 절대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선생님이 말한다.

“자 이제 말씀해주세요.” 내가 물었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수렵 감시인에게 말하고 샤일로를 저드 아저씨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나요? 저는 샤일로가 저드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개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글쎄, 마티. 네가 오랫동안 생각했다면 그게 가장 잘한 일 일거다.”

“하지만 그게 ‘옳은’ 결정이었나요?” 내가 묻는다. “저는 저드 아저씨가 수렵 금지기간에 사슴을 죽인 것을 제가 신고하지 않아서, 아저씨가 계속 사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말로는 우리가 표지판을 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저씨가 최근에 우리 숲에서 사냥을 했대요. 심지어 술 취한 채로 숲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아저씨가 미친 듯이 총을 쏘서 총알이 내려와 베키를 죽이면 어떻게 하죠?” 나는 심호흡을 한다. “가끔은 너무 걱정돼서 잠을 잘 자지 못해요.”

나는 선생님께 내가 만약 저드 아저씨를 신고했다면 수렵 감시인이 그의 소총을 가져가 어젯밤 길에서 벌어진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의 총을 빼앗아 갔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매 상황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일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다고 말하지. 일이 잘 풀리면 좋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다.”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나요?” 내가 묻는다.

선생님이 얇은 미소를 짓는다. “특히 나에게서는 그렇단다. 마티, 나는 진실을 말하도록 배웠단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눈치 채셨고 나는 매를 맞았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 그리고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 하지만 진짜 시험은 나중에 온단다.”

나는 선생님의 집 계단 그늘에 앉아 차가운 사과 주스를 마시면서 선생님 말씀을 듣자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는—않는—것처럼 보인다.

“시험은… 아주 많았단다. 하지만 네가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는 다른 것이란다. 내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 같은 사람 대부분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 하지만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자신의 상태를 물으러 왔을 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가 쾌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저 말을 빙빙 돌렸어. 나는 그들을 슬프게 만들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리고요…?”

“그는 죽었단다. 일요일에 병세가 심해져 월요일에 숨을 거두었단다. 유언을 남기지 않았지. 그의 아내에게 사업을 운영할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주지 않았어. 그리고는 그의 아내가 나를 찾아와 ‘왜 그가 죽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죠? 말해 주었다면 일이 좀 더 수월했을 거예요’하고 말했단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었단다. 그래서 내가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또 찾아오면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심했지. 그 환자는 화가였어. 그녀의 전시회가 여

러 주에서 열렸지. 헌팅턴, 찰스턴, 모건타운, 심지어 뉴욕시까지. 나는 그녀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다음에 진료실을 찾아와 겪고 있는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할 수 있는 한 가장 부드럽게 그녀가 말했던 다음의 큰 전시회를 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생님이 숨을 깊이 들이 마시고, 팔꿈치를 그 뒤의 계단에 꺾는다.

“그녀는 다섯 달 후에 죽었고, 그녀의 친구들이 분노에 찬 편지를 보냈단다. 그리고 왜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최고의 작품 세 점을 작업 중이었는데, 그녀에게 사실을 알려준 후부터 그녀는 붓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 다섯 달 동안 블라인드를 치고 집에 앉아 있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했지.”

나는 앉아서 그 이야기에 대해 생각한다. “아마 선생님은 중간 정도만 말해야 했나 봐요.” 내가 말한다.

“오, 그것도 시도해 봤단다. 안 했을 거라 생각하지 말거라. 나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신만이 아신다’고 말했지. 지난 번에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했지만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지. ‘나도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 경험상 저처럼 아픈 사람이 보통 얼마나 사나요?’ 그보다 담담하게 물어볼 수도 없을 거다. 하지만 나는 그가 정말로 알고 싶은지 궁금했다.”

선생님이 잔을 다시 들고 비운다. “만약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면 나는 그걸로 싸우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법을 좇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 옳은 일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른 것이 될 수도 있단다. ‘네’가 결정해야 하는 거야. 그게 어려운 일이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그 암사슴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는 나이를 얼마나 먹었는지 상관없이 항상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데이비드 하워드가 전화를 했다.

“내일 우리 집에 오는 거 어때?” 그가 묻는다.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열어보지 않았던 해저 지도 퍼즐이 있어.”

그게 데이비드네 가족이 그에게 준 선물이다. 그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바다 속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너 알지?” 데이비드가 묻는다.

“아니.”

“맞춰봐.”

“1마일?”

“거의 ‘7’마일이야!”

“거짓말이지, 데이비드.”

“내일 와서 한번 봐봐. 두시쯤 와, 내가 보여줄게. 땅에 있는 것처럼 바다 바닥에도 산과 계곡이 있어.”

이제 더 흥미롭게 들린다. “알았어.” 내가 그에게 말한다. “갈게.”

저드 아저씨의 점박이 개가 광견병에 걸렸는지 보려면 나홀이 남았지만, 광견병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다라 린은 기분이 좋다. 그래서 아마 다라 린은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라 린은 스타킹을 신은 발로 부엌 주변을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미끄러져 다니다가 베키의 손을 잡고는 둘이 함께 엄마가 왁스를 입힌 바닥을 미끄러져 다닌다.

“나는 괜찮단다.” 엄마가 거실에서 사과를 먹으며 말한다. “둘이 바닥을 더 예쁘고 빛나게 해 줄 거야.”

그러나 동생들은 샐일로를 그 행동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곧 베키의 양말을 샐일로의 발에 신기고, 다라 린의 팬티와 “신나고 놀라운 서부 버지니아”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힌다. 다라 린과 베키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키득거리다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찾아 둘러본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걸치는 개는 명예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빠가 소식을 듣고 집으로 왔다. 오늘 아빠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길에 들은 것인데,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가 이번 주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출근을 했고, 그의 고용주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저드 아저씨가 하는 모든 새로운 일들은 그 전보다 정도가 심하다. 먼저 그가 차로 우편함을 박은 것. 싸움을 거는 것.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술에 취해 출근을 한다. 아마 그가 해고를 당하고 여기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

데, 그렇게 되면 나는 좋을 것이다. 그 동안에 난 꼭 가야할 때 말고는 더 이상 큰 도로로 나가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빠에게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아빠가 저드 아저씨를 보러가고 결국은 그를 더 화나게 해서, 어쩌면 그가 다음 번에는 베키를 쏠지도 모른다.

나는 밤늦도록 엄마,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소파를 내 침대로 쓰는 것이 좋은 점은 엄마, 아빠와 함께 늦게까지 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아빠가 우편배달을 아주 일찍 시작해서서 열 시에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열한 시까지 깨어있다.

우리 집에는 위성 접시가 없지만 이곳 프랜들리에서는 위성 접시를 달아도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이 많지 않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우리 모두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내가 소파에 이불을 깔고 난 후에 엄마와 아빠는 부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에 아빠는 우리 땅 몇 에이커를 싸게 팔아 치우고 우리 집에 엄마와 아빠를 위한 방 하나를 더 만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엄마, 아빠가 오래 쓰시던 방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그것도 좋다. 그러나 이곳에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미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땅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소파에 누워 샤일로와 나만이 지내는 방을 가지면 어떻게 생각해 본다. 나는 샤일로는 오늘 밤 냄새로 어떤 토끼들을 찾아냈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검은색 래브라도와 함께 사방을 돌아다녔을지도 모른다. 나는 엄마와 아빠가 자러 들어간 후 우리 집의 소리를 듣는다. 냉장고와 보일러가 웅웅거리고 딸깍거린다. 내 생각에 나는 열한 시 반쯤 잠이 들었고, 해저 그림의 퍼즐과 데이비드가 말한 것처럼 해저에도 정말 산과 계곡이 있는지 상상하는 꿈을 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아주 크고 무서운 소리라서, 만약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다면 심장이 멈추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방 안의 암흑을 바라보는 것인지 눈꺼풀 속의 암흑을 바라보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쿵하는 큰 소리와 쿵 소리, 그리고 또 쿵, 쿵.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아프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누군가가 침입을 한 건가? 나 혼자 깨어있는 건가?
왜 아빠가 일어나지 않았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그 소리보다 더 불길한 소리.

샤일로.

열 넷

나는 샤일로가 밤중에 셰퍼드에게 물려 찢기는 것을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샤일로는 지금은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다! 샤일로는 뿔 수 있어!

그러나 다시 한 번 소리가 난다. 개가 짖는 소리, 깹깹 울어대고 킁킁 앓는 소리가 난다. 개 짖는 소리,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샤일로 사냥철?

나는 소파에서 뛰어 내려왔다.

아빠와 엄마도 이제는 잠에서 깨어 현관으로 나온다.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가 현관에 불을 켜고, 귀를 반쯤 젖힌 샤일로를 보길 기대하지만 샤일로는 그곳에 없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다. 확실하다.

“무슨 일이니?” 엄마가 가운 소매를 걸으면서 묻는다.

“모르겠어요.” 내가 신발에 발을 급히 끼워 넣으면서 말한다. “샤일로를 찾아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려라.” 아빠가 말한다. “나도 같이 가자.”

엄마가 손전등을 가져와 나에게 건네준다. 엄마의 머리카락은 얼굴 근처에 풀어져 있고 눈은 졸리면서도 놀란 것 같다.

샤일로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나는 오싹해진다. 혹시 독이라도 퍼진 것일까? 궁금하다. 킁킁거리며 우는 소리도 아니고,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짖는 소리도 아니다. 어쨌면 그 셋 다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보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

아빠가 침실에서 나온다. 아빠가 잠옷 위에 바지를 입고, 우리는 겹옷을 입는다.

“제발 조심해요.” 엄마가 말한다.

우리는 진입로를 내려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는 곧 달리기 시작했고, 아빠는 내 옆을 빠르게 걷는다.

“그 소리 들으셨어요? 쿵 하는 소리?” 내가 묻는다.

아빠가 끄덕인다. “그게 뭘지 모르겠구나. 여느 때처럼 천둥이 우르릉거리는 거라고 생각했었던다. 샤일로도 천둥을 무서워하지 않지?”

“샤일로는 천둥을 무서워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냥꾼들이 왔을지도 몰라요.” 내가 말한다.

하늘이 흐리다. 그러나 달빛이 보일 때는 앞을 꽤 볼 수 있었다. 우리 진입로를 따라 가는 길은 평소와 달라 보이거나 이상한 점이 없었지만, 그 때 손전등의 빛 줄기 속에서 샤일로를 발견했다.

샤일로는 길 위에 서서 아주 나쁜 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다리 사이에 꼬리를 밀어 넣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몸을 굽힌다.

“샤일로!” 내가 외친다. “어디 다친거야?”

그 소리가 샤일로의 목구멍에서 다시 흘러나온다. 그날 밤 내 심장이 두 번째로 거의 멈출 뻔했다. 나는 손으로 샤일로의 머리와 귀를 쓸어 넘긴다. 상처가 있는지 보기 위해 그의 온 몸을 더듬는다. 샤일로의 다리와 발도 더듬는다. 다행히 뼈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다.

입에 거품을 물지도 않는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른쪽을 쳐다봐서 아빠가 도로 위를 비춘다.

그쪽에 무엇인가, 주머니 쥐 같이 작은 물체가 보였다. 우리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샤일로는 우리를 따라 약간 다가가더니 망설인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포트홀에 다다랐고, 손전등의 불빛 속에서 내가 보았던 것은 누군가의 차에서 떨어져 나온 오래된 머플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데.” 아빠가 말한다.

샤일로는 여전히 멈춰 서서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천천히 도로 주변과 다리를 전등으로 비추자 건너편의 풀들이 보인다. 큰 증기 롤러 같은 것이 지나간 것처럼 짓이겨져 있다. 풀밭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우

리는 그쪽으로 건너갔다. 나머지 머플러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독 아래로 손전등을 비춘다. 그곳 바닥에 옆으로 넘어진 저드 아저씨의 픽업트럭이 있다.

“오, 말도 안돼!” 아빠가 나직이 외친다.

우리는 서둘러 독 밑으로 내려간다. 우리는 기름과 휘발유 냄새로 사고가 막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엔진이 아직 뜨겁다. 그 때 우리가 들었던 큰 소리가 저드 아저씨의 픽업트럭이 포트홀을 박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난 소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데이비드 하워드와 함께 동굴을 찾아 휘저어 다녔던 그 독을 아빠 뒤에서 따라 내려갈 때 만약 저드 아저씨가 죽었다면 우리 문제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우리 땅에서 사냥 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날 밤에 그가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해 샤일로를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가 나에게 다시 총을 쏘까봐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나는 부끄러워졌고, “아니에요, 예수님. 진심이 아니었어요.”하고 말했다.

만약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기도와 가슴에서 나온 기도 중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을 들어주실까? 그것이 문제다.

우리는 독 바닥으로 내려갔고, 아빠는 내 손에 있던 손전등을 가져가 트럭을 비춘다. 사람 다리가 픽업트럭 운전석 아래로 튀어 나와 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운전석 안을 보려고 노력한다. 아빠가 내 옆으로 내려와 앞 유리를 비춘다.

저드 아저씨가 거꾸로 뒤집혀 핸들과 문 사이에 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맥주 양조장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아빠가 위쪽에 있는 문을 열고 몸을 숙여 저드 아저씨의 손목을 찾아 더듬는다.

“맥박을 찾았어!” 아빠가 말한다.

그리고는 아빠가 반대편으로 돌아가 트럭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기 위해 트럭을 밀어본다. “저기 오래된 나뭇가지 보이지?” 아빠가 말한다. “이쪽으로 끌고 와라, 마티. 그리고 저드의 다리 바로 옆,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라. 트럭을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지 않으면 저드는 그 다리를 잃게 될 거야.”

아빠가 트럭을 다시 움직이고, 나는 나뭇가지의 두꺼운 부분을 밑에 받친다. 트럭을 굴러야 저드 아저씨 쪽의 문이 열릴 것 같다.

“너는 집으로 가서 구조대에 전화를 해라.” 아빠가 나에게 말한다. “서둘러라, 마티. 그리고 구조대가 여기 도착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머피 선생님께 연락해라. 선생님께 저드가 아직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다고 말해라.”

나는 바람처럼 집으로 달려갔고 샤일로도 내 옆을 따라왔다. 샤일로는 도로에 앉아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샤일로는 이 상황이 거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시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뛰어가는 동안에 나는 생각한다. 샤일로가 도로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저드 아저씨가 샤일로를 차로 치려고 했던 것일까? 액셀을 밟고 포트홀을 친 것일까?

내 추측이다. 내가 진짜로 아는 것은 샤일로가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절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소파에 누워 그 굉 소리가 천둥이라고 잠시 생각하다가 곧바로 잠이 들었을 것이다. 저드 아저씨가 살게 되면 그건 샤일로 덕분이다.

엄마가 방충망 앞에 서있고, 다라 린이 그 옆에 서서 눈을 비비며 의아한 듯 쳐다본다.

“마티?” 엄마가 부른다.

“저드 아저씨예요!” 하고 외쳤다. 생각보다 숨이 찼다. “아저씨의 트럭이 다리 옆의 독 밑으로 떨어졌어요. 구조대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머피 선생님께 전화를 해야 해요.”

엄마가 다른 손전등을 찾아 나에게 건네주고, 나는 밖으로 나가 도로에서 주차할 곳을 찾느라 천천히 다가오는 선생님의 차가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선생님이 다리 근처에 차를 대고 내린다. 선생님도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다. 그리고 검정색 가방을 들고 있다. 나는 선생님이 독 아래로 내려가 풀과 덩불 사이를 헤치고 저드 아저씨의 픽업트럭까지 가는 것을 돕는다. 아빠가 차문을 열어 놓았고, 선생님은 몸을 최대한 굽혀 청진기를 갖다 댄다. 손전등으로 저드 아저씨의 눈을 확인한다.

“내 생각엔 내상을 입은 것 같군.” 선생님이 말한다. “안에 기어 들어가지 않

는 한 검사할 방법이 없어. 그건 백해무익해....”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나는 독을 다시 기어 올라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기다렸다. 나는 샤일로가 나를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엄마와 다라 린과 함께 집에 남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그때 빛이 보이고 외침 소리와 트럭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독 아래로 내려오고, 라디오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투광조명등이 나와 아빠, 그리고 선생님의 잠옷을 비춘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픽업트럭이 조심스럽게 똑바로 놓여졌다. 그들은 저드 아저씨를 들것에 올리기 전에 목과 등에 부목을 댔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저씨를 독 위로 들고 올라가고, 가끔씩 저드 아저씨가 입을 열고 신음소리를 낸다. 무슨 말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욕지거리뿐이다.

“역시 저드 트래버스 답군.” 그 중 한사람이 말하고, 삼 분 후에 구조대 트럭이 시스터스빌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열다섯

“아저씨 죽었어요?”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다라 린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다.

“아니, 하지만 의식불명이란다.” 아빠가 말하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준다.

“그의 트럭은요?” 엄마가 묻는다.

“웰란스 정비소에서 내일 견인차를 보낼거야.”

“그가 많이 다쳤나요, 레이?”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다리는 부러진 것 같아.”

“빠가 다 튀어 나왔나요?” 다라 린이 묻는다. 나는 가장 이상한 여동생을 가진 게 틀림없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트럭이 뒤집히면서 독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야. 아빠가 말한다.

다라 린은 피비린내 나는 장면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더 있는지 기다리며 오랫동안 가지 않고 있다가 천천히 걸어서 침대로 간다. 물론 베키는 계속 잠을 잔다.

엄마와 아빠는 부엌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는 불을 끄고 침실로 다시 돌아간다. 나는 소파에 누워 어둠 속을 응시한다. 나는 예수님과 다시 대화를 하지만 말을 하는 건 나 혼자다. 처음에 나는 예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순간에는 듣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아저씨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다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니까.

그때 나는 ‘다시는 그가 사냥을 나가지 못하도록 다리가 낫지 않게 해 주세요’ 하고 생각하는 나를 발견한다.

하느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

다음날 아침, 웰란스 정비소에서 견인차가 왔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주위에 서있었다. 일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가 많이 퍼지진 않았다. 아빠와 나, 그리고 다라 린은 그곳을 보러 갔다. 아빠는 저드 아저씨의 물건이 풀 속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마침내 트럭이 다시 도로 위로 옮겨지고 저드 아저씨가 일하는 곳으로 끌려갔다. 트럭의 상태는 저드 아저씨만큼이나 안 좋아 보였다. 아저씨는 안전 벨트도 매지 않았던 게 확실하다.

일요일 점심식사 후에 아빠가 나를 데이비드 하워드네 데려다 주었고, 나는 데이비드가 현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자마자 나는 뛰어 올라갔다.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 내가 묻는다. 데이비드의 얼굴을 보니 못 들은 것이 확실하다.

“뭘?” 그가 묻는다.

“이쪽 다리에 있는 큰 포트홀 알지?”

“그곳에 동굴이 있어?” 데이비드가 함성을 지른다.

“아니, 하지만 저드 아저씨네 트럭 알지?”

“거기로 떨어졌어?”

“아니, 데이비드, 내가 말 좀 하게 해줘! 저드 아저씨가 어제 밤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트럭이 포트홀을 박고는 통제력을 잃었나 봐.”

그리고 나는 저드 아저씨가 탄 트럭이 먼저 다리를 박고 둑 아래로 떨어진 것을 어떻게 보안관이 알았는지 말해준다.

“우---와!” 데이비드 하워드가 말을 끝면서 말하는 것이 마치 가방에서 공기가 천천히 빠져 나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워드 아저씨는 신문사에 전화해 그 이야기가 실려 있는지 확인했다.

데이비드와 나는 함께 태평양 해저 퍼즐을 맞췄다. 하워드 아줌마가 가끔씩 도와주고도 약 두 시간이 걸렸는데, 다 완성하고 나니 남은 건 밝고 어두운 선들뿐이었고, 그것들은 마치 이름이 찍혀있는 파란 포대처럼 보였다. 갈라파고스 단열

대, 대륙붕, 보닌 해구, 수문. 나는 단층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해적의 보물상자, 그리고 바닥에 침몰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워드 아줌마가 지도에서 마리아나 해구를 가리켜 보인다.

“저긴 세계의 대양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란단다.” 아줌마가 말한다. “깊이가 거의 7마일이지.”

나는 바다 속으로 7마일을 곧장 내려가면 어떨지 생각해 본다. 엄마의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는데, 7마일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마 4분의 1마일 정도였는데, 그 정도도 충분히 무섭다.

아빠는 네 시에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지만 아빠가 도착했을 때는 네 시 반이었다. 하지만 하워드 아줌마가 호박파이를 주셨고, 두 번째 조각을 먹을 때까지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내가 지프에 올랐을 때, 아빠가 말한다. “눅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드를 들여다보러 병원에 갔다 왔단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의사가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거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근처에 저드가 친척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한 명도 생각나지 않았단다.”

“아저씨는 좀 어때요?”

“어젯밤 수술을 받았단다. 머피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상이 있었어. 비장 파열에 갈비뼈 몇 대와 왼쪽 다리가 두 군데 부러졌고, 쇄골 골절, 두개골 골절... 그는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면, 살게 될까요?” 내 목소리는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그럴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일하러 가려면 꽤 걸릴 것 같아.”

“사냥은요?” 내가 묻는다.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아들아.”

그때 나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 내가 말한다. “말씀드릴게 있어요.” 마른침을 삼킨다.

아빠가 나를 살펴보고는 지프를 도로 밖에 세우고 시동을 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앉아서 나를 살핀다.

나는 크게 한 번 숨을 쉬고, 아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는다. 아빠에게 저드 아저씨를 수렵 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샤일로를 받기로 했고, 어떻게 내가 저드 아저씨를 협박했는지 다 털어 놓았다. 내 입으로 다 말하고 나서 나는 머피 선생님 집 옆 도로에서 샤일로와 있었던 일을 말하고, 우리에게 총을 쏜 사람이 저드 아저씨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두 가지 말 할 것이 있을 때, 하나가 특히 더 무서운 것이라면 그것은 아빠가 매순간 계속해서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는 것이다.

“그가 너에게 ‘총을 쏘다고’, 마티?” 아빠가 묻는다. “그가 너에게 ‘총을 쏘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말 안 한 거니?” 아빠는 너무 흥분해 협박에 관한 것은 모두 잊어 버렸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말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를 화나게 하고 저드 아저씨도 더 화나게 할 것 같았어요.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도로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는다.

“마티.” 아빠가 마침내 말한다. “가끔 내가 고집스럽고 가끔 화를 내지만 다시는 이번처럼 속이지 말아라.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쏜다면 나는 알고 싶단다. 네가 약속하면...”

“약속할게요.” 아빠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내가 대답한다.

그리고 아빠가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할 때, 협박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리고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휘파람을 불고 싶을 정도로 기쁘고 안심이 됐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건 뼈가 반 정도 부러진 채 병원에 있는 사람을 두고 휘파람을 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월요일 학교에서의 이야기다. 그 땐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모두들 그 소식에 약간씩 말을 덧붙였다.

“저드 아저씨 이야기 들었어?” 마이클 솔트가 묻는다. “차를 다리로 몰고 가서 개울로 떨어졌대.”

“머리가 크게 찢어졌대.” 프레드 닐스가 말한다.

사라 피터스는 저드 아저씨의 개들이 그와 함께 있다가 모두 익사했다고 말했고, 버스가 학교 운동장에 설 때쯤에는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는 이미 죽어서 그의 개들과 함께 나란히 묻혔다. 이제 나는 사실과 소문의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된다.

텔벗 선생님은 상상에서 사실을 가려내려고 하면서, 저드 아저씨가 트럭에 누워있는 것을 실제로 본 유일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문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지 알아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6학년생들이 저드 아저씨에게 줄 큰 편지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으로 들어올 때면,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한다. 한마디로 좀 더 낮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우리가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빼면 말이다.

교실 안이 너무 조용해서 마이클 솔트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도 들릴 정도이다. 사실 편지를 쓰는 것은 ‘좋은’생각이지만 아무도 편지를 쓰려하지 않았다.

텔벗 선생님은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감지한다. 선생님은 영어라는 언어가 정말 좋은 점은 무엇이든 할 말이 충분히 많고, 어떤 식으로 말하기 싫으면 다른 방식으로 말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이 되고 동시에 정직한 말은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이 묻는다.

“빨리 나오시길 바라요?” 사라가 말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고개를 흔들다. 어느 누구도 그가 곧 나아져 술 취한 채 도로를 운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고 소식에 안타깝네요?” 데이비드가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떠한 것도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가 우편함을 들이 받고, 트럭을 후진해서 울타리를 박지 않도록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샤킬로를 칠 수도 있었다.

마침내 내가 손을 들었다. “‘건강 회복하세요’는 어때요?” 내가 묻는다.

우리는 투표를 한다. 바람보다는 명령에 가깝다. 텔벗 선생님은 큰 하얀 도화지를 꺼내어 반으로 접는다. 바깥쪽에는 초록색으로 크게 “회복하세요!”라고 쓴다. 그리고 안쪽에는 다른 색의 펜으로 차례로 우리 이름을 쓴다.

몇몇 여자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름 끝에 꽃을 그려 넣는다. 프레드 닐스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비행기를 그린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다소 알맞아 보이는 것을 한다. ‘마티’와 ‘샤일로’, 두 이름을 적는다.

저드 아저씨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는 나뭇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할로윈은 왔다가 지나갔다. (나는 피자, 그리고 데이비드는 케첩 병 분장을 했다.) 저드 아저씨의 점박이 개는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고, 자치주에서는 저드 아저씨가 그의 개들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데리고 있기로 했다.

저드 아저씨 집 근처의 이웃들이 나머지 두 개들 중 하나를 돌봐 주려고 데려갔고, 다른 쪽 이웃들이 세 번째 개를 데리고 갔다. 어떤 이웃은 자동식 잔디 깎는 기계를 몰고 저드 아저씨의 집으로 가서 잔디를 깎아주었고, 웰란스 차량정비소에서는 저드 아저씨가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트럭을 고쳐 그의 집 앞에 세워놓았다. 찌그러졌던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

저드 아저씨를 병원에서 집까지 태워준 것은 아빠였다. 엄마는 하루 전에 장을 봐서 식료품이 든 큰 봉지 두 개를 보냈다. 아빠가 저드 아저씨의 집에 그 짐들을 들여놓아 주었다.

아빠는 그동안 저드 아저씨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해주었다. 저드 아저씨는 앞을 똑바로 쳐다보며 앉아있었다. 물론 저드 아저씨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했고, 다리에는 크고 낡은 깁스를 했다. 그의 갈비뼈가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지 못하고 똑바로 앉는다.

“그를 발견한 사람이 우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묻는다.

“그래, 하지만 그렇던 그렇지 않던 그에겐 별 차이가 없어보였단다.” 아빠가 대답한다.

그 주 토요일에 나는 머피 선생님 집에서 낙엽을 갈퀴로 긁어모았다. 선생님이 저드 아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 간호사가 온대요.” 내가 그에게 말한다.

선생님이 머리를 흔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불운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초한 불운이 있는 것 같구나.” 선생님이 말한다. “저드는 둘 다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뭐가 있죠?” 내가 묻는다.

“그가 태어난 것과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 말이다.” 선생님이 말한다.

“그 사람들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알지. 개울 반대 편, 여기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지. 대부분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들은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 사실일 가능성이 컸단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대부분 트래버스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때린다는 이야기였단다. 그들은 선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학대까지 들었지. 그러니까 버클 끝말이야. 이웃들이 말하길 가끔 도로 끝에서도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게 또렷하게 들렸다는구나. 한두 번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떠날 수 있게 되자마자 도망치거나 결혼을 했단다. 저드는 막내였는데, 다른 아이들이 떠나고 난 후에 트래버스 노인은 화가 났고, 저드와 다른 아이들은 그 성격을 물려받았지. 그리고 그 집에 불이 났고, 그 집은 마치 횃불처럼 타 올랐다. 트래버스 부인은 사망했고, 저드와 그의 아버지는 밖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트래버스 노인은 일주일 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때부터 저드는 임대 트레일러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줄곧 그곳에 살았지. 내가 알기로는 여자친구는 없단다. 남자친구도 거의 없지. 그저 저드와 그의 개들 뿐이고, 그가 개들을 다루는 것을 보면 사실 친구라고 부를 수도 없지.”

“선생님은 다정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자신의 개를 다정하게 대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말한다.

“마티, 네가 신발 끈 묶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다정함도 ‘배워야’ 하는 거란다.” 선생님이 말한다. “그리고 저드는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전혀 없었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드 아저씨는 맞는 아이가 아니라 때리는 어른이 더 어울린다는 것이다. 아저씨는 그 둘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다.

그날 오후 아빠가 우편물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저드 아저

씨를 찾아갈 수 있는지 묻는다.

“가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마티.” 아빠가 말한다. “그가 우편물을 가지러 계단을 기어 내려올 필요가 없도록 그의 집 문 앞까지 우편물을 배달해 주었다. 항상 문을 똑똑 두드리고 그가 잘 지내는지 묻지. 그가 안에 있는 걸 알지만 그는 한 번도 대답을 한 적이 없단다. 이웃들 말로는 그들한테도 그렇다고 하더구나.”

“아저씨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틀리길 바란다.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멈춘다는 말이 있지. 이게 바닥이 아니라면, 무엇이 바닥일지는 정말 보기 싫단다.”

나는 매일 아침 저드 아저씨가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 궁금하다. 절뚝거리는 개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트럭에 찌그러진 곳이나 긁힌 상처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상처와 멍이 생기고 뼈가 부러진 것은 바로 아저씨다. 나는 몇몇 사람들이 그가 머리에 총을 쏘 자살한 상태로 문을 열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어떨지 궁금하다.

그가 나아지면 우리는 전에 있었던 똑같은 문제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할지 모르겠다. 저드 아저씨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포악할 것이다.

열여섯

그러나 다음 날, 단지 내가 아빠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아빠와 나는 지프에 올라 저드 아저씨의 집으로 갔다. 그의 트레일러 건너편 도로에 차를 세웠다. 엄청나게 큰 짓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반겨주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11월의 태양은 미들 아일랜드 개울에 빛나고 있고, 저 트레일러 안에 가장 가깝고 포악하며 슬픈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할 것이다.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그의 정원의 풀들이 깎였지만, 한줄기의 빛도 그의 집으로 스며 들어와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이 싫다는 듯 모든 차양이 내려져 있다.

우리는 저드 아저씨의 환자로 된 인도가 시작되는 곳으로 길을 건너간다. 트레일러의 문이 열린다. 그곳에 다리에 큰 깁스를 한 저드 아저씨가 엽총을 들고 서 있다.

“원하는 게 뭐요, 레이 프레스턴?” 그가 외친다. 여전히 목 받침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우리는 걸음을 멈춘다. “마티와 나는 그저 안부나 전하기 위해서 들렀소.” 아빠가 말한다.

“그래, 나는 안부 필요 없소.” 저드 아저씨가 말한다. 그가 총을 정확히 우리에게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식료품 없나, 저드? 아니면 내가 가져다 줬으면 하는 것이라도?” 아빠가 묻는다.

“아무것도 필요 없소.”

“그럼… 알겠소. 우린 그저 당신이 걱정됐소. 모두들 걱정하고 있지.”

저드 아저씨가 약간 웃고는—너무 약해서 웃음이라고 하기도 그렇다—문을 다

시 달는다.

“자, 아들아?” 아빠가 말한다.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가 포기하지 않았다. 만약 다정함이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저드 아저씨는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저드 아저씨가 샐일로를 다치게 한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말한다. “엄마, 저드 아저씨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우편물과 함께 매일 계단에 무언가를 놓아두면 아저씨를 바꿀 수 있을까요? 먹는 거요?”

“그거 꽤찮은 생각인구나, 마티.” 엄마가 말한다. “오늘 아침 빵 구을 때 저드에게 줌 가져다줄까 생각했단다.”

그날 저녁, 나는 저드 아저씨에게 주기 위해 빵 한 덩이를 찐고, 다음 날 아빠가 가져가 저드 아저씨의 문 바로 앞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화요일에 아빠는 월요일에 놓아둔 빵이 여전히 그곳에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저드 아저씨가 우편물은 가지고 들어갔지만 빵은 밖에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가? 그는 세상에 대해서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화가 난 것이다. 오, 한편으로는 그는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프레스턴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친절함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최대한으로 깊은 절망에 빠지면 그는 그 빵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낄 것이다.

“제가 이번에 싸놓았던 닭고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아빠에게 묻는다.

“빵 옆에 놓아두었단다.” 아빠가 대답한다.

나는 존 콜린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먹을 것을 놓아두면 그가 배고파 질 거라고 생각한다.

수요일, 아빠는 빵과 닭고기가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물론 저드 아저씨가 그것들을 버렸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운에 맡겨야 한다.

“아저씨는 보통 어떤 우편물을 받아요?” 내가 아빠에게 묻는다.

“대부분 잡지들이란다. 《총과 총알》. 《사냥철》. 광고 우편물, 청구서.”

“편지는 받지 않나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구나.”

저드 아저씨의 문 밖에 음식을 놓아둔 지 일주일 후에 나는 음식포장 고무줄 아래에 작은 글을 함께 보내기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난 달 벌이 샤킬로를 쫓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샤킬로를 봤어야 했어요. 달리면서 동시에 뒤 돌아 벌을 쳐다보더니 덩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아마 벌이 자신이 개울로 뛰어 들어갔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딘가에 있는 벌집에 샤킬로가 코를 너무 가까이 들이 밀었음 거예요. 이 일 이후로는 좀 더 조심하겠지요.

마티 올림

저드 아저씨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우리뿐만은 아니었다. 가끔 몇몇 이웃들이 그의 문 밖에 캐서롤(찜 요리)과 케이크를 갖다 놓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음식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아저씨가 그것을 먹거나 물어 버리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우리는, 차양을 내리고 하루 종일 집 안에 앉아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절대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했다. 틀림없이 그곳에 앉아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하던 대로 계속한다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그 후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트레일러와 개들, 그리고 총….

머피 선생님은 저드 아저씨가 잘 회복했다고 들었다고 말해주었다. 즉, 그의 몸 말이다. 다리가 다 나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방문 간호사는 그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나는 샤킬로를 처음 보았을 때를 생각한다. 덩불 속에서 슬금슬금 움직이며 떨었다. 나를 두려워해서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을 쓰다듬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배를 땅에 대고 기어서 도망쳤다. 샤킬로에게 믿음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다.

저드 아저씨의 나머지 세 마리 개들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그의 방식처럼 그 개들을 묶어 놓았을 때 무서운 존재나 사람이 나타나 싸움을 시작하면 그 개들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달려드는 것은 자신들이 다치지 않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저드 아저씨는 트레일러에 처박혀 있고, 나는 우리가 한 번에 조금씩, 천천히 그에게 친절함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가 남겨둔 음식을 가져가고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저드 아저씨에게 쓸 편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샤일로 뿐이었다. 생각해보면 유일하게 아저씨와 내가 둘 다 마음을 썼던 것은 샤일로인 것 같다. 그러나 그와 나는 샤일로에게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쏟았다.

나는 아저씨에게 우리가 샤일로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을 때 무게가 얼마나 되었는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밥찌꺼기를 먹이면 안 되고 균형이 알맞은 개 사료를 먹여야 털이 윤기난다고도 말해주었다. 샤일로가 두더지를 따라 땅 바로 아래로 파고드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는지도 말해주었다. 샤일로는 최대한 빠르게 땅을 파고, 그 두더지는 샤일로를 피해 굴을 팠다. 아저씨가 전혀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일이라도 샤일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을 종이에 적었다. 나는 사람이 다른 어떠한 편지도 받지 못한다면 그가 받는 유일한 편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드 아저씨네 트레일러의 블라인드가 올라갔다. 아직 창문을 통해서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가 밖을 보지 않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샤일로에 대해 썼던 그 모든 글들은 내가 저드 아저씨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빙빙 돌려 쓴 잡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가 발로 차고, 저주하고, 굶기고, 저드 아저씨를 너무 무서워해서 그 집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 다리조차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개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이 개는 도로에서 저드 아저씨의 트럭을 발견한다. 나는 아직도 저드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포트홀을 잘못 박은건지, 아니면 그가 샤일로가 도로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치려고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 이 남자는 한밤중에 우리 집을 제외하고 다른 집과는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의 독 아래 트럭에 박혀 꼼짝 못하고 있었고, 샤일로는 소리 없이 집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을 수도 있다. 저드 아저씨는 그날 밤 사고 난 차 안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랬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 후에도.

그러나 대신에, 그 개는 울고 킁킁거리기 시작했고, 키가 100피트의 저드 트래

버스 아저씨를 무서워하면서도 우리를 깨웠다. 나는 저드 아저씨가 필쩍 뛰길 기대하지 않는다고 편지에 적는다. 샤일로로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저드 아저씨는 돌아다니며 우리 개를 칭찬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그날 밤 그를 구한 게 아빠와 내가 아니라 샤일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날 오후, 아빠가 저드 아저씨의 집 문간에 가져다 놓 수 있도록 쓴 건포도를 넣은 둥근 빵의 고무줄에 그 편지를 붙인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왔을 때, 나는 아빠에게 말한다.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를 보러 가고 싶어요.”

“저, 마티.” 아빠가 말한다. 아빠는 여전히 지프에 앉아있다.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니. 어째서 그가 널 들여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니?”

“그냥요. 그냥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대답한다. “저도 가서 저드 아저씨와 싸우고, 샤일로를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타라. 나중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가는 것이 낫겠구나.” 아빠가 말한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 좀 가지고 나올게요.” 내가 말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현관으로 가 장미꽃봉오리 위에 앉은 딱정벌레처럼 행복해 하는 샤일로를 팔에 안아 올린다.

“방문하려는 거야.” 내가 말한다.

샤일로는 내 얼굴을 핥는다.

나는 지프에 올라 내가 평소 하던 것처럼 샤일로를 아빠 옆 좌석에 내려놓고 뒤로 기어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 나는 안전벨트를 매고 샤일로를 무릎 위에 앉힌다.

아빠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이 일에 대해서 확신 하는거니, 아들아?”

“아니요. 하지만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한다.

아빠가 시동을 걸 때, 샤일로는 창문 쪽으로 꿈틀거리며 머리를 댄다.

“곧장 돌아올게요.” 내가 엄마에게 외친다. 엄마와 여동생들은 오두막 옆에서 코트를 입고 검은 호두를 집고 있다.

창에 매달려 한 발은 창문틀에 올리고 있는 샤일로는 행복해 보일수록 나는 생각한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샤일로의 행복은 진입로 끝에 다다랐을 때까지만 지속된다. 아빠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샤일로는 창문에서 멀어져 나를 올려다본다.

내가 샤일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괜찮아, 샤일로.” 내가 말한다. 우리가 다리를 건너면 샤일로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집으로 뛰어 갈까봐 두려워 샤일로를 꼭 안는다. 게다가 춤다.

포트홀 근처를 지날 때 아빠는 지프의 속도를 줄이고, 우리가 다리를 건너기 시작할 때, 판자들이 트럭 아래에서 달가닥거리는 소리를 낸다. 공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샤일로가 내 무릎 위로 가라앉는다.

“괜찮아.” 내가 다시 말한다.

샤일로가 내 손을 핥는다.

그러나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회전을 했을 때, 샤일로가 짹짹거리기 시작한다. 샤일로의 목에서 높고 약한 울음소리가 나온다. 내가 샤일로의 등을 쓰다듬는다. 나는 샤일로가 나에게 언제, 어떻게 처음 왔는지 회상한다. 그때 아빠는 샤일로를 합법적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했다. 어쨌든 주인이니까. 그리고 샤일로는 지금 하는 것처럼 내 무릎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샤일로에게 보여주고 싶다. 세상의 돈을 모두 준다고 해도 저드 아저씨가 샤일로를 데려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샤일로를 빌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방문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샤일로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샤일로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샤일로를 다시 데려다 주고 지프 밖으로 내려놓자마자 저드 아저씨가 발로 찬 것뿐이다. 샤일로를 발로 차고 우리 속에 가두어 놓고 며칠 동안 밥도 주지 않았다.

나는 침을 삼킨다. 내 개가 짹짹거리는 소리를 듣고,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어떻게 이게 옳은 일인지 생각한다.

우리는 저드 아저씨의 집에 도착해서 개울가에 차를 세운다. 샤일로는 이제 정말로 짹짹거리고 내 무릎 위에 뿌리를 내리려는 것처럼 몸을 웅크린다.

우리가 차에서 내릴 때 나는 샤일로를 팔에 안는다.

“널 내려놓지 않을거야.” 내가 말한다. “네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내거야. 내가 약속할게.”

샤일로가 내 얼굴을 다시 핥는다.

우리는 길을 건너 판자로 된 인도를 따라 저드 아저씨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계단을 오른다.

아빠가 문을 두드리고, 샤일로로는 나에게 바짝 달라붙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드 아저씨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나는 저드 아저씨가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아빠가 다시 문을 두드린다.

텔레비전이 꺼진다.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저드.” 아빠가 외친다. “자네를 보러온 사람이 있어.”

여전히 반응이 없다. 나는 어찌면 이것이 지금 당장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찌면 저드 아저씨가 엽총을 가지러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이 개가 아니었다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포트홀을 박지 않았을 것이며, 그 포트홀을 박지 않았다면 지금 다리가 부러진 채 드러누워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문이 아주 약간 열린다.

“원하는 게 뭐요?” 저드의 목소리가 들린다.

샤일로가 너무 심하게 몸을 떨어져서 내 팔을 흔들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네를 보러 누가 왔어.” 아빠는 기분 좋게 말하고 옆으로 물러난다. 나는 저드 아저씨가 문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몸을 움직인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문이 닫히지는 않았다. 샤일로가 나의 개가 되고나서부터 더 커지고, 살도 찌고, 털에 윤기가 생겼지만 지금은 내 팔에 최대한 파고들어서 강아지처럼 보인다.

“그냥 한번 들렸어요.” 내가 저드 아저씨에게 절대 개를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담담하게 말한다.

그리고 마침내 정적이 어색해질 때쯤 저드 아저씨가 문을 조금 더 연다. “그래, 잠시 들어와라.” 그가 말한다. 그리고 당황한 것은 저드 아저씨다. 내 생애 처음으로 그가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봤다.

저드 아저씨의 집으로 들어온 것도 처음이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

차린다.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거나 양말을 제때 빨지 않는 사람의 집 같은 냄새가 난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목 보조기를 하지 않지만 여전히 걸음이 뻗뻗하며, 여전히 다리에 큰 깁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가 몸을 구부려 소파에 있는 잡지 몇 권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다. “앉고 싶으면 앉아라.” 그가 말하며 부러진 다리를 앞으로 놓고, 소파 옆에 있는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몸을 굽히고 앉는다.

나는 샤일로에게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샤일로를 꼭 껴안았다. 샤일로가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 하지만 샤일로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다. 샤일로가 내 다리 위에 오줌을 누어도 놀랍지 않을 거다.

“일어나 있는 것을 보니 보기 좋군.” 아빠가 내 옆에 의자에 앉으면서 말한다. “잘 낮고 있는 거지?”

“괜찮소.” 저드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러나 그는 샤일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나는 아저씨가 내 무릎 위에서 조용하게 두려움에 몸을 떨며 몸을 움크리고, 나뭇잎처럼 활기가 없는 이 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 개가 그의 개였을 때, 그가 샤일로를 다룬 방법, 샤일로가 계속해서 도망간 그때를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 개가 나를 발견한 개구나.” 저드 아저씨가 말한다.

“네.” 내가 그에게 말한다. “우리가 밖으로 나와 아저씨 차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냈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 나는 샤일로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고, 귀 뒤를 부드럽게 긁고, 손으로 샤일로의 등을 쓰다듬고, 다시 쓰다듬어준다. 저드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다.

“그 개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아저씨가 말한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샤일로가 떨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드 아저씨가 앞으로 몸을 살짝 구부려 손을 움직인다. 그가 천천히 손을 뺐자 샤일로가 움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샤일로가 아저씨의 손길로부터 몸을 피하고 뒤로 빼는 것을 보며 침을 삼킨다.

그러나 저드 아저씨는 내가 한 것처럼 손으로 부드럽게 샤일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나의 개를 쓰다듬기 시작한다.

처음에 나는 샤일로가 너무 멍해서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 두려워 숨도 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샤일로가 이곳에서 나가 이곳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저드 아저씨가 샤일로를 몇 번 쓰다듬고는 손을 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저씨는 필요한 것을 찾은 것처럼 그저 샤일로의 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었고, 나는 샤일로가 몸의 긴장을 풀고 다리의 힘을 푸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앞을 똑바로 쳐다본다. 저드 아저씨의 손길이 더욱 차분해지고 더 이상 거칠지 않다. 그의 손가락이 샤일로의 귀에 닿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기 전에 손바닥이 밑으로 내려와 샤일로의 코를 쓰다듬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 이마로 움직인다.

나는 저드 아저씨를 재빠르게 올려다보았는데, 아주 잠시 동안 그의 눈이 축축이 젖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의 개를 다시 한 번 내려다본다. 아저씨를 쑥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샤일로를 절대 여기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샤일로는 알고 있을까? 이것이 그저 방문한 것이고, 그가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 다음에 저드 아저씨의 손가락이 앞으로 와 샤일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샤일로는 처음으로 다가가 아저씨의 손을 핥았기 때문에 내 생각엔 알고 있는 것 같다.

<작가 소개>

필리스 레이놀즈 네일러는 페퍼라는 이름의 스프린저 스파니엘 종의 개



와 많은 수의 고양이와 함께 인디애나 주와 일리노이 주에서 자랐다. 필리스 레이놀즈의 어머니는 아이오와 주 출신이고, 아버지는 남부 출신으로, 그녀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거주한 적은 없지만 그녀의 남편이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자랐고, 그들은 가끔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

그녀의 첫 번째 저서에서 등장하는 샤일로의 실제 모델이 된 개는 지금도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샤일로라는 작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한때 학대를 받았던 이 개는 뉴베리 상을 수상한 이후 마을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멀리 캐나다에서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무대인 곳을 보러 찾아온다. 샤일로 삼부작의 세 번째 이야기는 <샤일로 구하기>이다.

필리스 레이놀즈 네일러의 저서로는 ‘샤일로’, ‘샤일로 구하기’, ‘대탈출’, ‘텍사스 제이크의 치유’, ‘용감한 3학년들 중 하나’, ‘대니의 개’, ‘나는 왜 작가가 되었나’ 등이 있다.

그녀와 남편 렉스는 메릴랜드 주의 베데스다에 살고 있다. 제프와 마이클, 두 아들의 부모이며, 소피아와 트레사 네일러, 두 손녀의 조부모이다.

<커버 스토리>

샤일로는 이제 마티의 개다

마티 프레스턴의 수고는 끝나야 한다. 마티는 저드 트래버스 아저씨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한 힘들고 비열한 일들을 2주 동안 했고, 저드 아저씨가 자신의 비글, 샤일로를 학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티는 머피 선생님이 샤일로가 셰퍼드에게 공격당했을 때 치료해준 비용을 갚기 위해 선생님을 위해 일한다.

그러나 사냥철이 다가오면서, 저드 아저씨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저드 트래버스, 맥주, 그리고 총은 위험한 조합이다. 아저씨가 샤일로를 다치게 하려고 하면 어찌지? 마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저드 아저씨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생기면, 그 비밀은 저드 아저씨가 그 일을 마티의 잘못으로 돌리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다. 마티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일까? 그리고 마티는 그럴만한 용기가 있을까?

퍼블리셔 위클리 의 베스트셀러

★ “팽팽한 긴장감과 섬세한 인간애... 책장을 빨리 넘기게 만든다.”

— 북 리스트

★ “저자는 전편의 감동을 유지하고 있다.”

— 퍼블리셔 위클리